



우리 모두 함께 해요~

www.nec.go.kr

##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 깨끗한 한 표 두 표가 모여 대한민국을 앞으로!

**만 19세 이상** (93. 4. 12. 이전 출생) 투표하세요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하러 가실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부재자투표소 투표: 4.5(목)~6(금) [오전 10시~오후 4시]



**1인2표** 후보자에 한 표, 정당에 한 표



원색 투표용지는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에 한 표  
연두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정당에 한 표  
후보자·정당의 정책·공약을 한명에게 판단하여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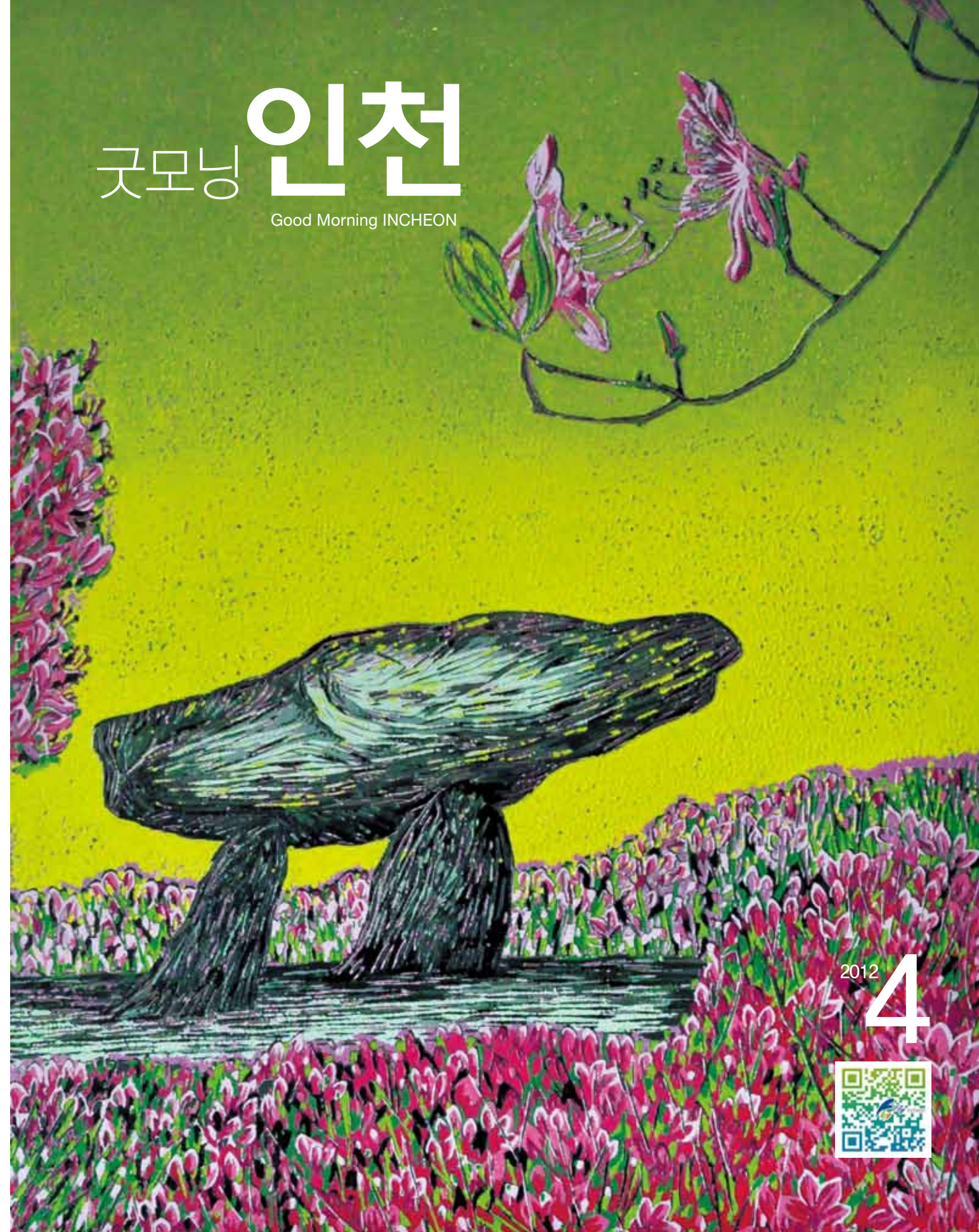
선거법 안내  
신고전화 **1390**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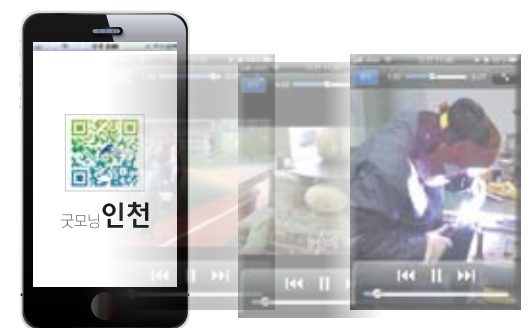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2년 4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허종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ou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twitter.com/youna1488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사진** 김보섭 · 김성환 · 홍승훈(자유사진가)  
 심영보 · 하장원(시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디자인 & 인쇄** 성광디자인(주) T. 032.881.9441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http://goodmorning.incheon.go.kr)과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http://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문의** T.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굿모닝인천〉의 못 다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사의 취재 영상부터 뒷이야기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종이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 페이지 상단의 QR 코드 촬영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인천시미디어〉앱을, 태블릿 PC에서  
 멀티미디어매거진 〈굿모닝인천〉을 다운로드 후 실행



## 06 Special / 꽃놀이 명소 꽃구름 꽃구름 진한 꽃향기 풍기어라

꽃구름이 번지고 있다. 개나리, 벚꽃, 철쭉, 진달래가 봄 햇살에 하나둘 꽃망울을 터트린다. 서두르자, 4월, 지금이 바로 꽃 보러 갈 때다.

## 14 Enjoy Incheon ① / 짜장면박물관 개관 짜장면을 맛보다

하루 700만 그릇이 팔리는 국민음식 짜장면.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짜장면의 역사가 시작된 요리집 '공화춘'이 오늘날 '짜장면박물관'으로 간판을 새로 걸고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 18 Enjoy Incheon ② / 인천의 오래된 중국집 공화춘의 후예들, 여전히 춘장을 볶고 있다

물 끝 달는 곳에 화교가 있다. 한국 최초의 서양 호텔이었던 중화루(中華樓)는 1915년 청요리 집으로 바뀌어 60여 년간 그 명성을 날렸다. 인천은 명실 공히 청요리의 본산이 된다.

# Contents

04 **Communication** 봄바람 타고 온, 내 고향 인천소식 외

06 **Special** 꽃놀이 명소

12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투르 드 코리아 2012

14 **Enjoy Incheon ①** 짜장면박물관 개관

18 **Enjoy Incheon ②** 인천의 오래된 중국집

24 **포커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개막 경기

26 **인천나들이** 과학전시관

30 **아름다운 사람 I** 경인방송 iTVM 원기범 앵커

32 **아름다운 사람 II** 도선사 배순태

34 **시정토크 앱** 책 읽는 인천

38 **Culture News**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16회 정기연주회 외

40 **별난 물건, 별난 역사** 과학 문물

42 **Civic News** 유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후보도시 확정 외

46 **Council News** 학교폭력대책 시민 대토론회 개최 외

48 **만화** 금연 Halleh(할래!)

49 **한방칼럼** 비염

50 **Infobox** 경력단절, 다문화 여성 취업에 발벗고 나서 외

55 **리크루트** 인천 고용정보

56 **소통 24** 미추홀콜센터 시민상담

57 **인천사는 이야기** 사람이야? 건물이야? 외

58 **모닝커피 한잔** 민선숙 인천시 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국장

59 **인천풍경 플러스** 여기보세요... 봐야 봄이란다



### Cover Story

이제 완전한 봄이다. 인천시민의 마음을 강화로 초대하고 싶었다.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고인돌(강화자석묘-사적 제137호)과 고려산 진달래의 만개한 봄기운을 만끽하길 희망하며, 목판 소멸기법으로 표현했다.

판화 · 김경배 作



## 인천과 통(通)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천시 대표 미디어와 SNS에서 우리 만나요.

###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heon.go.kr)

**블로그** (blog.naver.com/flyic)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 봄바람 타고 온, 내 고향 인천소식

바쁘게 살다보니 내 고향 인천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굿모닝 인천>을 통해 인천소식을 접할 수 있어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참 신한 내용이 많아서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듯 고향을 접하고 있습니다. 3월호도 좋았는데, 특히 인천의 초록공간을 소개하는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돌아오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청라생태공원을 찾아 초록빛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씻어내려 합니다. 4월호에는 꽃이 아름답게 피는 명소를 소개해 주세요.

\_ 양신석 서울 마포구

### 제3의 고향, 인천!

경북 영주시는 내가 태어난 제1의 고향! 대전 서구는 직장과 집이 있는 제2의 고향! 인천은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계신 제3의 고향! 인천은 이제 내게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처가를 다녀오던 길에 지하철에서 접한 <굿모닝 인천>으로 인천을 더 넓고, 더 깊게 알게 됐습니다. 또한 새롭게 발전하는 인천의 모습에 가슴 뭉클함도 느꼈습니다. 가까이에서 늘 함께하지는 못해도, 매력적인 도시 인천의 성장을 기대합니다.

\_ 임석재 대전 유성구

### 타 지역에서도 관심 있는 인천

시민과 함께 하는 인천 홍보도우미 <굿모닝인천>. 시정 현안과 인천 사람, 생활정보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으려는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발행일이 너무 늦는다는 점입니다. 시의성 있게 시정현안을 다뤄야하기 때문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발행일을 조금만 앞당겨주세요. 늘 인천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는 좋은 정보 전해주어 고맙습니다.

\_ 권경희 충남 연기군

### 내년에 둘째를 계획 중이에요

매달 <굿모닝인천>을 보기만 했지 이렇게 펜을 드는 건 처음입니다. 이 책 한권에 인천이 전부 들어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지에 사는 친구가 인천구경을 시켜달라고 해도 <굿모닝인천>만 펼쳐면 '어디로 갈지' 걱정이 없습니다. 아기 엄마이다 보니 3월호에선 특히 양육 및 보육에 관한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올해 둘째 아이를 계획 중인데, 저도 출산물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또 출산장려 정책의 수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_ 김연숙 서구 가좌동

### 우와~ 인천에 축구전용경기장이 생기다니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에 유림식 축구전용경기장이 탄생한다는 소식이 매우 반가웠습니다. 특히 인천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의 전용경기장이 된다니, 인천유나이티드가 명문구단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꼭 경기장에 가서 인천을 힘차게 응원해야겠어요. 인천시의 보육정책에 관한 기사도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단지 무상보육·교육에 그치지 말고 교사나 학부모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정책을 반영하는 인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_ 조효림 부평구 굴포로

### 인천에 관한 새로운 발견

<굿모닝인천> 3월호 가운데 3·1 독립운동에 관한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천안 병천과 화성 제암리 등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알고 있었어도, 인천 배다리 황해장터에서 3·1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30년을 인천에 살아 왔는데 그 사실을 몰랐다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늘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애郷심을 일깨워주어 고맙습니다.

\_ 김기남 남구 주안동

### 인천의 아름다운 길, 널리 알렸으면

가정동에서 서구청에 이르는 길은 봄이면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장관을 이룹니다. 가좌동에서 산곡동 넘어가는 길도 그렇고요. 어느 동네 어느 길하면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도록 특색 있는 길을 조성하면 어떨까요? 꽃이 아름답게 핀 길, 가볍게 산행하기 좋은 등산길, 가족과 거닐기 좋은 공원길, 두 발로 여유롭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길... 잘 찾아보면 인천에도 아름다운 길이 참 많답니다.

\_ 김영미 남동구 논현동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20

미추홀콜센터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추홀콜센터가 운영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정작 번호도 알지 못하고 이용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굿모닝인천>을 통해 미추홀콜센터 이용법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비롯해 팩스, 문자, SNS 등 다양한 통로로 시민과 소통하고 있더군요. 모두 기억해 두세요, 120. 그리고 인천에 대해 궁금하면 언제 어디서나, 120을 누르세요.

\_ 변상규 동구 송현동

##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시장님 인천 남구 용현동에도 도서관을 만들어주세요. 구도심에는 시민이 갈 도서관이 없답니다.

남구에는 주안도서관 등 9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용현동에는 독정골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거주인구, 사업비, 운영비 및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입니다.

**@Bulloger**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psr3대중골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목발을 짚은 장애인이라며 출입을 막은 것이지요. 먼거리를 운전해서 갔는데 그런일을 당해 화가 났습니다.

골프장은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구두, 하이힐, 목발 등을 사용할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담당 직원의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장애인이라도 골프장 운영(8분 티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설물(그린)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형식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ulloger** 석바위시장 바로 옆건물에 흉물스럽게 필력거리는 현수막을 제거해주세요.

석바위 시장 지역의 이면도로 주변 도시미관을 나쁘게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단속반원의 순찰을 통해 제거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Bulloger**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신대사거리에 며칠째 횡단 보도신호 등이 도로를 향해 있어요. 아무도 신경안쓰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가 안되는것 같아요. 신호등이 안 보여서 신호 두 번 바뀔때까지 못건너고 있는데 빨리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신고하신 사항은 신호등 보수차량을 현장에 투입하여 최근 불편사항을 조치했습니다. 점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된 불편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 전재우(당시 만 21세, 남)  
**발생일자** 2011년 10월 23일(일)  
**발생장소** 남구 문학동  
**신체특징** 착의불상  
**제보처**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서구 승학교갯길

## 꽃구름 꽃구름 진한 꽃향기 풍기어라

‘꽃바람 꽃바람, 마을마다 훈훈히 불어오라. 복사꽃 살구꽃 환한 속에 구름처럼 꽃구름 꽃구름 환한 속에  
꽃가루 흩뿌리어 마을마다 진한 꽃향기 풍기어라...’ 가곡 ‘꽃구름 속에’ 중에서.  
꽃구름이 번지고 있다. 개나리, 벚꽃, 철쭉, 진달래가 봄 햇살에 하나둘 꽃망울을 터트린다. 하지만 일년 중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게 피어나는 저 꽃도, 언젠가는 비가 되어 후두두 떨어질 것이다. 서두르자. 4월, 지금이 바로 꽃 보러 갈 때다.

글. 정경숙\_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 黃 봄의 시작, 개나리

봄. 겨우내 무채색으로 잠들어 있던 세상에 연초록빛이 퍼지고 이내 노랑, 빨강, 하양 꽃  
수가 놓인다. 파사로운 봄벌의 손길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꽃은 개나리. 봄바람에 봄햇살  
에 이끌려 문밖으로 나서면 아파트 담장, 길옆 할 것 없이 온 세상에 노란 물이 들었다.  
서구청 뒤편에서 가정오거리에 이르는 옛 길인 승학교갯길은 4월 초면 개나리가 눈부신  
터널을 이룬다. 자동차 속도를 조금 늦춰 그 안을 달리면 차창 밖으로 연둣빛과 노란빛이  
어우러진 풍경이 물결친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잠시 차에서 내려 거닐어도 좋다. 가는 길  
중간 중간에 쉼터가 있어 유유자적 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꽃바람 맞은 불그레한 얼굴로  
꽃반지 만들어 끼고 꽃싸움 하며 봄날의 시간이 꿈결처럼 흘러간다.  
자유공원의 옛 비둘기광장에서 중구문화원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이맘때면 개나리로 곱  
게 물든다. 계단 맞은편에는 벚꽃이 아름다움을 겨루기라도 하듯 피어 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물이 곱다랗게 든 연인의 얼굴일 테다. 이와 나온 꽃놀이, 발걸음을 더  
해 강화 읍내에서 조금 벗어난 송해로로 향해도 좋다. 노란 빛에 파묻힌 기나긴 길을 거  
닐며 봄날의 호사를 누려보자.

**개나리 명소** 승학교갯길(서구청 뒤편~가정오거리), 자유공원(옛 비둘기광장~중구문화원),  
강화 송해로





1



2



1, 2 수봉공원  
3 자유공원

## 白 봄의 절정, 벚꽃

봄이 무르익으면 벚꽃이 핀다. 월미도는 4월 중순이면 현기증 날 정도로 온 세상이 하얗게 빛난다. 입구부터 시작하는 벚꽃의 향연은 산 중턱 산책로를 따라 절정을 이룬다. 벚꽃 눈을 흠뻑 맞으며 산길을 걷다, 정상에 이르러 전망대에서 세상을 내려다본다. 질푸른 바다가 물결치고 그 사이 새하얀 꽃 바다가 넘실거린다.

자유공원에도 이맘때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기나긴 세월을 비밀스레 간직하고 있는 벚나무들이 제물포고 뒷담길과 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 주변을 촘촘히 매우고 있다. 인천대공원도 벚꽃 피는 4월이 가장 아름답다. 자전거광장에서 호수삼거리를 거쳐 공원 후문에 이르는 산책로는 700여 그루의 벚나무로 눈부신 터널을 이룬다. 수봉산도 봄이면 벚꽃이 물결친다. 특히 산 정상에 이르는 계단 옆으로 벚나무가 흐드러지게 퍼 마치 새하얀 수채화 물감을 뿌려놓은 듯 하다.

강화 고려궁지에서 북문에 이르는 길 양편도 30여 년 된 벚나무가 몽게몽게 피었다. 하얀 구름 속을 거닐며 향기에 취하고 낭만에 취해 본다. 이 곳에 어둠이 내리고 벚꽃에 조명 이 비추면 마음에 또 다른 파장이인다. 벚꽃이 만개해 꽃바다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이달 10일 경, 강화읍 용흥궁공원~고려궁지~강화산성 북문~오읍약수터 거리를 따라 야간 벚꽃놀이가 펼쳐진다. 강화군 930-3621~3

**벚꽃 명소** 월미도(입구~산책로), 자유공원(제물포고 뒷담길과 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 주변, 인천대공원(산책로), 수봉산, 청학동(동네입구~보광사 가는 길), 신도 구봉산, 강화(고려궁지 입구~북문 언덕길), 연수동 적십자병원 담장길, 도화동 인천대 정문길



3





## 赤 봄의 대미, 진달래 · 철쭉

벚꽃이 한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면 진달래는 서서히 마음으로 파고드는 꽃이다. 4월 하순이면 강화 고려산은 진달래로 온통 분홍빛이 된다. 진달래가 가장 많이 피는 곳은 정상 능선 북사면을 따라 355봉까지 이어지는 1킬로미터 구간. 바람이 산자락을 훑고 지날 때마다 요동치는 붉은 물결이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핀다. 맑은 날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꽃과 함께 북한산의 송악산과 연백평야까지 품에 안을 수 있다.

이즈음 고려산에서는 진달래의 축포 속에 '진달래 예술제'가 열린다. 올해는 이달 20일부터 5월 4일까지 고려산 일대와 고인돌광장에서 열린다. 강화의 멋과 맛을 담은 장터가 펼쳐지고 백련사 등산로를 따라 사진과 미술전이 열려 상춘객의 즐거움을 더한다.

강화군 930-3621~3

계양산도 4월 말이면 진달래가 붉게 타올라 지상낙원을 이루고 사람들도 붉은 유혹을 따라 산으로 향한다. 꽃 따라 하늘과 가까운 곳에 오르면 서쪽으로는 영종도와 강화도가 보이고 남쪽으로는 인천시내가 내려다보인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한 폭의 그림이다. 진달래 향연이 숲속에서만 비밀스레 열리는 것은 아니다. 인천대공원 호수주차장에서 만의골에 이르는 길에도 진달래가 활짝 피었다. 1킬로미터에 이르는 길을 따라 진달래가 분홍빛을 흩날리며 봄바람을 부채질한다.

또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면 화도진공원에 철쭉이 불디붉은 낭만을 풍기며 피어난다. 검은 기와담장에 이제 막 돌아나는 붉은 꽃이 조화를 이뤄, 한 폭의 동양화로 곱게 피어난다.

**진달래 명소** 강화 고려산, 계양산, 인천대공원 ~ 만의골 이르는 길 **철쭉 명소** 화도진공원



2



3

1, 2, 3 강화 고려산

### 절정이 언제인지는, 꽃만이 안다

올해 인천지역 꽃의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는 4~5일 늦지만 작년에 비해 6일 정도 빠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기상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벚꽃이 이달 13일 즈음 개화하고 20일 정도 만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개나리는 이달 4일, 진달래는 7일 즈음 각각 개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꽃놀이 갈 날짜를 정확히 고르기란 쉽지 않다. 특히 벚꽃은 개화해서 일주일이 지나면 절정을 이루며 이내 꽃잎이 지기 시작한다. 언제가 절정일지는 꽃만이 정확히 알 것이다. 꽃샘앞샘이 없기를 바라며 꽃소식을 귀동냥하는 게 현명하다. 또한 꽃구경은 햇살이 강한 대낮도 좋지만 새벽녘에도 좋다. 안개가 피어 오를 무렵, 꽃 터널을 지나며 맞이하는 황홀경은 부자런만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다.





# 두 바퀴로 물길을 잇다

글. 이용남\_본지 편집위원



프랑스에 투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가 있다면 한국엔 투르 드 코리아(Tour de Korea)가 있다. 투르 드 프랑스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풍경과 길을 자전거로 체험하면서 승부를 겨루는 유서깊은 자전거 대축제다. 이에 버금가는 투르 드 코리아는 무공해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가치를 널리 알리면서 국가비전인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세우는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다. 올해는 작년에 개통된 인천의 아름다운 물길인 서구 경인아라뱃길 아라뱃섬 정서진 광장에서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4대강 자전거길 통합 개통행사, 투르 드 코리아 2012 대회 등 3개의 행사가 동시에 열린다. 행사는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팡파르를 울린다.

4월 22일 열리는 개막식 주요 행사로는 국토종주 시작점인 경인 아라뱃길 자전거길의 의미를 담은 인천시립무용단의 축하공연, ‘자전거의 시작’을 조망하는 자전거 퍼레이드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운다. 이날 행사에선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자전거 1천대를 전달한다. 자전거와 관련된 화제의 인물도 볼 수 있는 기회다. 자전거 선진국인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영국, 스웨덴 대사 뿐 만 아니라 매일 50km씩 달리는 93세 바이크맨 이완순 할아버지, 자전거 경주대회 휩쓴 ‘철인여경’ 이미선 경사, 자전거타고 192개국을 여행한 윤옥환씨, 사막에서 자전거타는 한의사 김규만씨 등 자전거로 유

명해진 인물들의 자전거와 얽힌 경험담, 인생에 도전하는 그들의 험찬 삶을 만나는 기회다. 이날 행사에는 초청인사,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약 18km에 이르는 경인아라뱃길을 자전거로 퍼레이드하며, 자전거 그림·디자인, 클래식자전거, 기록사진 등이 전시돼 자전거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를 즐기게 된다. 4대강 자전거길 통합 행사는 4대강 10개 지역 수계에서 이뤄진다. 한강수계에선 남양주 팔당수력발전소~여주 이포보 37km, 충주 탄금대~조정지댐 30km(왕복), 금강수계에선 공주보~부여 백마강교 35km, 군산 금강하구~논산 강경포구 38km, 영산강수계

에선 광주 승촌보~담양 담양댐 54km, 나주 죽산보~목포 영산강 하구 48km, 낙동강 수계에선 낙동강 상주 상주보~구미 구미보 36km, 대구 강정고령보~달성보 23km, 함안 함안1지구~밀양 하남2지구 56km, 부산 을숙도~대동 수문 40km(왕복) 구간이다. 대한민국의 속살을 볼 수 있는 투르 드 코리아 코스는 4월 22일 인천 아라뱃섬~김포터미널~강변북로~서울올림픽공원, 4월 23~28일 부여~광주~여수~거창~구미~영주~충주, 4월 29일 여주 이포보~하남 조정경기장에서 마무리를 짓고 폐막한다.

▶ 투르 드 코리아 코스안내

▶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 시민선수단 함께 퍼레이드, TDK 경주 개시
- 클래식자전거, 자전거 그림, 디자인, 기록 사진 전시 등

▶ 4대강 자전거길 통합 개통 행사

- 4대강 10개지역 자전거 퍼레이드 (약40km 내외)

▶ Tour de Korea 2012 대회

- 아라뱃섬 개막, 하남 조정경기장 폐막





# 짜장면을 <sup>맛</sup>보다

## 짜장면박물관 ‘영업개시’



하루 700만 그릇이 팔리는 국민음식 짜장면. 그 고향은 바로 한국 속 작은 중국 차이나타운이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짜장면의 역사가 시작된 요리집 ‘공화춘’이 오늘날 ‘짜장면박물관’으로 간판을 새로 걸고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글. 정경숙\_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 중국인으로 복적이던 청관거리

중구 북성동 일대, 중국식 전통 대문인 패루(牌樓)를 지나면 여기부터는 새로운 세상이다. 붉은 바탕에 한자로 쓰여진 간판 그 사이 빛나는 홍등, 춘장 냄새와 차(茶)향이 뒤섞인 독특한 향취... 붉은 유혹으로 넘실대는 이 곳은 한국 속의 작은 중국, 차이나타운이다.

인천은 1883년 개항 이후 열강이 첫발을 디딘 곳이다. 1884년 청나라에서 중구에 조계(租界)를 형성하고 이를 시작으로 러시아, 미국, 일본 사람들이 몰려들어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이후 1914년 일제강점기에 조계제도가 폐지됐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았다. 1920년대 ‘청관거리’라 불리던 이곳 차이나타운에는 요리집 공화춘, 중화루, 송죽루가 들어서고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정부의 외국인 제한정책으로 상권을 유지하기 힘들어진 중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기까지, 차이나타운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도시였다.

### 짜장면을 처음 판 ‘공화춘’

북성동주민자치센터에 난 작은 길에 들어서면 등록문화재 제246호인 공화춘(共和春)이 모습을 드러낸다. ‘공화국 원년의 봄’을 맞는다는 의미로 1912년에 문을 연 공화춘은 짜장면을 처음 판 중국요리집이다. 한때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미식가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이곳이, 이달 28일 짜장면박물관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한때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에 즐겨먹었던 짜장면. 지금이야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넘쳐나지만 짜장면은 하루 700만 그릇이 팔릴 정도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짜장면은

### 개항장 테마박물관 거리 중구에 가면 역사가 보인다

중구 중앙동 거리는 인천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의 물결이 인 곳이다. 당시 일본제1은행을 비롯해 제18은행, 제58은행 등이 세워져 금융가를 이루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을 비롯한 서구식 건물이 터를 잡았다. 현 중구청 건물이 있던 인천부청사를 중심으로 관청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처럼 개항 당시 근대 건축물이 온전히 남아있는 중구 개항장 일대에 ‘테마박물관 거리’가 조성된다. 중구는 올해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근대 건축물들을 매입한 뒤 개항장에 있는 기존 박물관들과 연계하는 테마박물관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개항장에는 이달 개관하는 짜장면박물관을 비롯해 개항박물관, 근대건축전시관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구는 박물관 주변의 문화재급 건축물이나 오래된 건물을 사들여 역사체험관과 기획전시실 등을 세우면서 일대를 하나의 박물관 권역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1 60년대 공화춘 주방  
2 짜장면의 역사가 시작된 인천부두 풍경





1 60년대 공화춘 주방 2,3 공화춘 옛 모습 4 짜장면이 주 메뉴였던 70년대 졸업식 풍경

개항 당시 중국 상인들이 부두 노동자들을 상대로 빨리 먹을 수 있는 저렴한 음식을 고안하면서 처음 만들어졌다. 그네들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양파와 당근을 가미하고 춘장에 물을 타 연하게 풀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었다. ‘값 싸고 맛 좋은’ 국민음식 짜장면은 그렇게 탄생했다.

### 짜장면의 100년사가 고스란히

중구는 짜장면의 역사적 배경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비추어 보기 위해 짜장면박물관을 개관했다. 구는 작년 6월 보수공사를 마치고 지난 2월 10일 전시물을 설치하는 조성사업을 마쳐 공화춘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박물관은 먼저 건축물 자체가 개항 당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물관은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공화춘 기록화 보고서’를 토대로 각계의 자문을 구해 건물의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하며 새로 지었다. 또 건물을 해체, 보수하면서 나온 유물을 보존처리해 전시하며 현대에 고스란히 옮겨 놓았다. 공화춘에서 사용하던 현판과 의자 등 박물관 곳곳에 역사와 세월의 흔적이 자욱이 배어있다. 박물관은 대지면적 581.8㎡에 건물면적 846.2㎡, 지상 2층 규모로 7개소의 전시공간과 기획전시실, 뮤지엄 숏 등을 갖추었다. 구에서 수집한 유물과 자료 200여 점 가운데 의미 있는 전시물을 선별해 먼저 선보일 계획이다. 당시 공화춘을 비롯한 요리집에서 사용하던 의자, 그릇, 젓가락 등과 1950~70년대 실생활에서 사용하던 자료들을 전시한다.

### 차이나타운에서 근현대사를 곱씹다

제1전시실은 짜장면이 탄생한 개항기 인천항으로 시계바늘을 돌린다. 당시 인천항을 배경으로 부두 노동자들이 짜장면을 먹는 모습이 재현돼 있다. 제2전시실에는 1930년대 번성했던 공화춘이 영화처럼 펼쳐져 당시의 낭만에 젖게 한다. 1층으로 가면 후끈한 열기로 가득한 1960년대 공화춘 주방이 나온다. 당시 공화춘 주방장 우홍장이 면을 수타하고, 양파와 고기 등 재료를 손질하고 춘장을 볶는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여정은 공화춘의 창립자를 기리며 ‘우회광 기념홀’로 이름 지은 기획전시실에서 마침표를 찍는다. 이곳에서는 짜장면과 인천 화교의 역사와 관련한 전시를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다. 40분 정도면 여유롭게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다. 1883년 처음 터를 잡은 이래 질곡의 역사를 이어 온 차이나타운. 이곳은 단순히 화교들이 사는 동네가 아닌 하나의 문화이고 역사다. 건물마다, 골목마다 음식 하나에도 역사의 향기가 짙게 배어있는 곳. 오늘, 짜장면의 고향 차이나타운에서, 우리나라의 오늘을 있게 한 격동의 근현대사를 곱씹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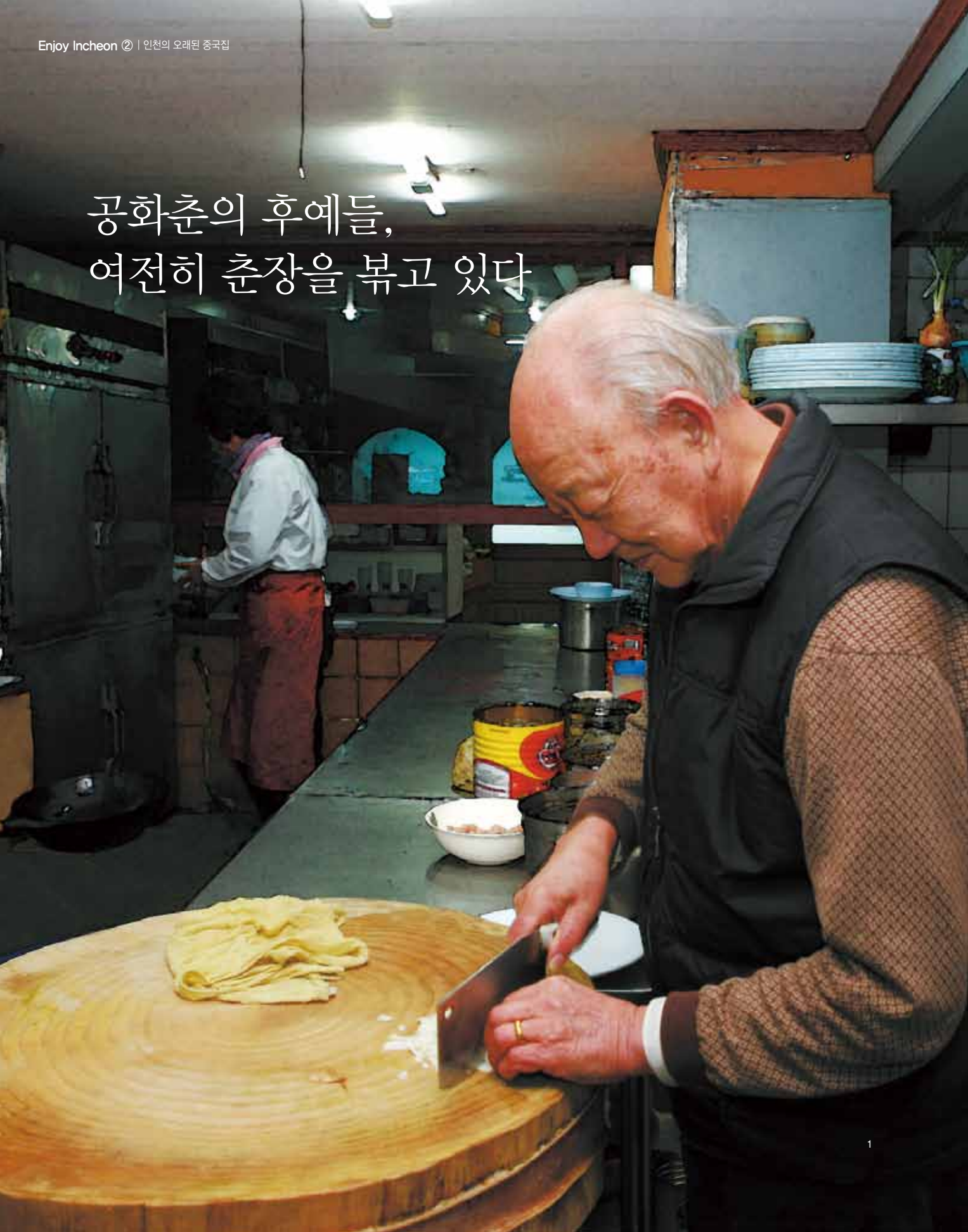
오시는 길 : 국철(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인천역에서 도보 1분 거리, 북성동주민자치센터에 난 작은 길에 들어서면 바로 짜장면박물관이다.  
관람 시간 : 오전 9:00~오후 6:00(매주 월요일, 1월 1일은 휴관)  
관람료 : 당분간 무료 문의 : 중구청 760-7823







# 공화춘의 후예들, 여전히 춘장을 볶고 있다



물 끝 닿는 곳에 화교가 있다. 전 세계 모든 곳에 화교들이 살고 있다. 인천에는 개항과 더불어 청국 거상(巨商)들이 입항하고, 뒤이어 쿨리(苦力·노동자)들도 밀려들었다. 그들과 함께 중국 음식문화가 들어왔다.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식칼 하나와 춘장 한 단지만 있으면 청요리 음식점을 차릴 수 있었다. 한국 최초의 서양 호텔이었던 중화루(中華樓)는 1915년 청요리 집으로 바뀌어 60여 년간 그 명성을 날렸고 이어 송죽루(松竹樓)가 문을 열었다. 애관극장 옆에 평화각(平和閣), 빈해루(濱海樓) 등이 개업하고 덕순반점, 원동반점 등이 중국집 간판을 걸면서 인천은 명실공히 청요리의 본산이 된다. 이제 1세대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났고 몇 집만이 그 아들 혹은 손자들이 그 손맛을 잇기 위해 여전히 불과 씨름하고 있다.

글. 유동현\_본지 편집장 사진. 김보섭\_자유사진가

## 신일반점 新一飯店

### 팔순 주방장이 만드는 해삼요리

현재 우리나라 중국음식점 중 가장 고령 현역 주방장은 신일반점의 임서약(林書若) 옹이다. 1931년 생으로 올해, 만으로 81세다. 신일반점에는 한명의 요리사가 따로 있긴 하지만 아직도 불 앞에서 커다란 검은 냄비를 들었다 놔다 하는 실제적인 주방장이다.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가 고향인 임 옹은 65년째 중구 신흥동로터리 주변에서 청요리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신일반점의 뿌리는 현재의 자리 건너편에 있던 작은 아버지(임극관·林克寬)가 하던 호떡집이었다. 임옹은 16세 때 낯선 땅 인천에 첫 발을 내디뎠고 작은 아버지를 도와 일을 했다. 비가 줄줄 새는 단층 하꼬방을 40만원에 얻어 중국 호떡을 팔아서 돈이 조금 모이면 수리해가면서 살만큼 어려운 생활을 했다. 자식이 없던 숙부는 그를 1957년 양자로 입적했다.

그는 가게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전라도 광주의 음식 재료상에 취직한다. 구례의 중국집에 자주 물건을 배달하러 다니다가 그 집 딸 왕수진(王秀珍)을 만나 결혼하게 된다. 임 옹을 믿음직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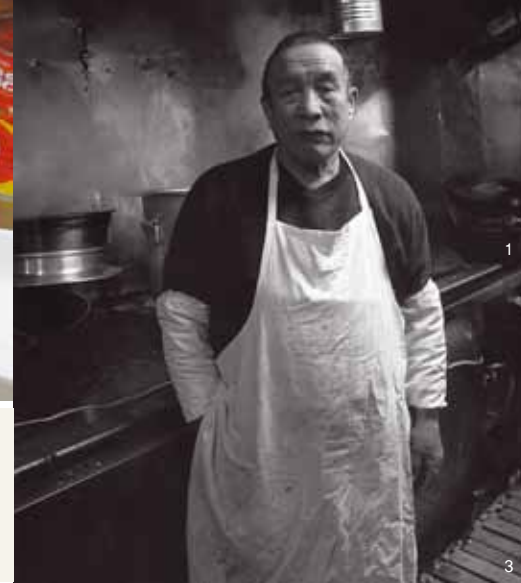
- 1 신일반점 현역 주방장 임서약 옹의 요리하는 모습
- 2 신일반점 주방
- 3 신일반점의 장남 임현일씨
- 4 2층에 대연화장을 갖춘 신일반점







- 1 신일반점 가족
- 2 임서약 웅이 요리한 소양해삼
- 3 현재 신성루 장덕영 사장의 부친 장적봉(張積房)씨
- 4 신성루 뒷문쪽 모습
- 5 신성루 큰길가쪽 문



보았던 처가집에서는 그에게 요리를 가르쳤다.

인천으로 돌아와 호떡집을 중국집으로 바꾸고 '신흥동에서 제일 맛 좋은 음식점이 되자'는 소망을 담아 '신일반점'이란 간판을 내걸었다. 살림집이 따로 없던 부부는 가게 홀에서 의자를 붙여놓고 새우잡을 자면서 일을 했다. 남편은 불 앞에서 땀을 흘렸고 아내는 하루에 40지게씩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랐다. 부부의 근면성과 요리 솜씨 덕분에 손님이 줄을 이었다. 하루에 밀가루 4포대가 소비되었는데 짜장면으로 치면 300 그릇이다. 면을 만들기 위해 수타하는 사람만 3명을 두었다는 게 임 웅의 기억이다. 78년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10여 년전 까지 만해도 돌잔치나 약혼식을 치를 만큼 규모가 큰 연회석을 갖춘 음식집이었다. 예전만은 못하지만 아직도 임 웅의 손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적지 않다. 임 웅 스스로 꼽는 베스트 메뉴는 해삼요리다. 해삼을 갈라 그 안에 다진 새우를 넣고 튀긴 다음 양념과 소스를 얹어 찌내는 소양해삼은 특미 중 특미다. 알맞게 삶은 삼겹살을 접시 바닥에 편 다음 그 위에 해삼탕을 부어내는 해삼쥬스도 단골들이 즐겨 찾는 이 집의 특별요리다.

그런데 임 웅의 이 손맛은 아쉽게도 대를 이어 전해질 것 같지는 않다. 일찍이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마음먹은 장남 현일(憲一·60)씨는 10대 후반에 요리를 배우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재주가 없어 아버지한테 야단맞기 일쑤였다. 게다가 고도근시로 인한 불편함으로 결국 주방일을 포기하고 말았다. 대신 이후 배달일을 열심히 해 현재도 그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돕고 있다. 임 웅의 차남과 삼남은 일찍 세상과 이별했다.

현일 씨는 왕윤청(王潤靑·55) 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그들은 현재 모두 한의사로 국자 대신에 침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뒤를 잇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임 웅은 아들이나 다름없는 한국인 주방장에게 20년 넘게 비법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손맛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 게 식도락가들의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신일반점 882-1812

## 신성루 新成樓

### 옛 중국집 분위기 그대로 간직

신성루를 처음 개업한 사람은 현재의 사장 장덕영(張德榮·53) 씨의 외삼촌 이영은(李永恩·작고) 씨다. 중국 산둥성 출신인 이 씨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을 오가며 무역을 했다.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현재의 위치 중구 신생동에 정착해 처음엔 월병 장사를 했다. 중국요리점으로 간판을 달았을 때 처음 이름은 신생반점이었다.

서울의 중국음식점에서 일하던 장 씨는 외삼촌의 부름을 받고 신성루에 와서 10년 동안 일하다가 가게를 떠난게 된다. 외삼촌 이 씨는 병을 얻어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외조가 장 씨에게 주방칼을 넘겨주었다. 장 사장은 그 후 오늘날까지 28년 동안 신성루의 맛을 이어 오고 있다.

신성루는 손맛뿐만 아니라 공간 분위기로도 오래된 중국집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건물은 외삼촌의 큰 아들이 장가 갈 즈음에 지었다는 게 장 사장의 기억이다. 약 40년 정도 된 중국집이다. 나무계단, 창틀, 손님방 등 신축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품고 있다. 특히 신성루의 특징인 작은 연못도 큰길가 출입문 앞에 그대로 있다. 그곳에는 80년 된 목단이 여전히 살아 있다. 외삼촌은 그 목단을 미국에 가져가려고 할 만큼 애지중지했다. 옥상에 올라가면 40년 중국집의 역사를 고스란히 볼 수 있는 나무판자 옥탑창고가 있다. 한때는 종업원들이 잠자리였을 그곳에는 커다란 솔 등 옛날 주방 도구가 쌓여있다.

신성루의 전성기는 길 건너에 키네마극장과 동방극장이 있었던 70년대 중반이다. 영화 관람 후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출입구가 길 양쪽에 있던 신성루는 그 당시 카운터가 두개였는데 계산하려는 손님들로 두 개의 카운터 모두 북새통을 이뤘다. 그 영화(榮華)도 구도심의 쇠락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사그러 들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매일 주방에 들어가 직접 식칼을 잡는 장 사장의 그 손맛을 잊지 못한 사람들의 발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취재하는 날 인일여고 1회 졸업생들의 저녁 모임이 있다고 출입문 앞에 게시돼 있었다. 그들은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이다.

신성루 761-4463





1 진흥각 왕진모 사장의 부인 후여사와 차남 린보씨 2 진흥각 왕진모 사장의 생전 모습 3 진흥각 후여사의 예전 모습 4 부평 복화루 5 차이나타운 중국집들의 애환을 그린 영화 '북경반점'의 배우와 스태프들



## 진흥각 振興閣

###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방 들어가는 후(侯) 여사

진흥각이 중국음식을 요리한 지 올해로 꼭 50년째다. 왕진모(1980년 작고) 씨는 중국 산둥에서 황해도 해주로 건너왔다. 왕 씨는 20세에 인천으로 내려와 배다리 근처 고모부가 운영하는 중국 집 금곡루(金谷樓)에서 일을 배웠다. 1962년 12월 10일 현재의 중구 신포동 스탠다드차타드는 행(제일은행)에 자신의 가게를 열었다. 왕진모 씨의 가운데 이름 '진(振)' 자를 넣어 '진흥각' 간판을 달았다.

길모퉁이에 있는 진흥각 자리가 은행 위치로는 적격이라고 생각한 제일은행 측 요구에 따라 67년 바로 옆 현재의 자리로 이전했다. 일본식 2층 목조 건물이었었는데 이름 덕분이었는지 진흥각은 늘 문전성시를 이뤘다. 한때 진흥각에 가서 요리를 먹는 것을 최고의 대접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다. 어린이날에는 예약을 하지 않고는 짜장면 냄새조차 맡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왕진모 사장은 슬하에 3남 2녀를 두고 80년에 세상과 하직했다. 현재는 차남 왕린보(王麟宝·48) 씨가 실제적으로 진흥각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주방장은 왕 씨의 화교 친구가 맡고 있다. 주방장의 손에 의해 진흥각의 맛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 후란영(侯蘭英·81) 씨는 매일 아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방에 들어간다. 직접 요리를 하진 않지만 요리사들에게 '진흥각 방식'을 강조하며 남편의 손맛이자 아버지의 손맛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진흥각 772-2944

### '복(福)'자 돌림의 마지막 중국집

복화루는 해방 직후인 1947년 부평문화의 거리 뒤편에 문을 열었다. 처음 문을 연 바로 그 자리에서 65년 동안 여전히 중국요리를 만들고 있다. 롯데백화점 부평점 맞은편에는 차이나타운 화교학교의 분교가 있었다. 그만큼 부평에는 화교들이 많이 살았고 중국집도 적지 않았다. 복금원, 복성원, 복흥원 등 유독 '복(福)'자 돌림의 중국집이 많았는데 이는 현재 복화루를 처음 문을 연 이복충 씨(1987년 작고) 형제들의 돌림자인 '복(福)'자에서 따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다들 떠나고 복화루만이 그 전통과 맛을 지켜가고 있다. 복화루는 현재 이복충 씨의 아들인 이본위(67) 씨가 부인 왕수영(61) 씨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씨 부부의 부모와 조부모는 중국 산둥성 출신으로 그들 모두 청나라 시대 때 인천으로 내려와 터를 잡았다. 신흥동 신일반점의 이모네집이다.

복화루 503-9725

## 복화루 福華樓

## 진흥관 振興館

### 매운 짜장면으로 유명

주안사거리 옛 경기은행 옆골목에서 중국요리집을 해온 세월이 올해로 44년째. 이 집이 유명한 것은 '빨간 짜장면' 사천(쓰촨)짜장면이다. 개업 내내 주방장을 지킨 주인 왕동량(72) 씨가 20여 년 전 개발해낸 매운 짜장면이다. 이 집의 또다른 주메뉴는 닭대신 복어를 사용한 복간풍이다. 화교 2세로 인천이 고향인 왕 사장은 열아홉살 때부터 중국요리집에서 일을 배웠다. 서울 서대문과 명동 모 백화점 인근의 규모 큰 음식점을 거쳐 중구의 대표적인 중국집 '진흥각'에서 주방장을 맡게 된다. 진흥각에서 7년 정도 일한 후, 왕씨는 독립해 주안 지금의 자리에 자신의 가게를 열었다. 상호를 자신의 근무했던 '진흥각'의 이름을 따 '진흥관'으로 붙였다. 왕 사장의 부인은 탤런트 하희라 씨와 사촌지간으로 알려져 있다.

진흥관 875-1664

### 자장면 없는 '중국집' 복래춘(福來春)



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복래춘에는 부영고, 소과, 깨과자, 팔보월병 등 공갈빵 외에도 수십 가지의 중국 전통과자를 만든다. 19세부터 빵을 굽기 시작한 곡회옥 씨는 인천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중국 전통과자를 만든다는 긍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자부심을 담아 복래춘의 포장지에는 '百年傳統老店'이라고 적혀있다.

차이나타운 화교 중산학교 바로 정문 앞의 복래춘은 짜장면집이 아니다. 4대째 공신빵(공갈빵)과 월병(월병)을 굽고 있는 중국 전통과자점이다. 지금은 곡회옥(曲懷玉·63) 씨와 그 아들 곡사충(曲士忠·31) 씨가 화로 앞에서 함께 맘을 흘리고 있다.

곡 씨의 할아버지는 1920년대 한국으로 건너와 월병을 팔기 시작했다. 그 역사를 한눈에 보여 주는 것이 상점 벽에 걸려 있는 '월병 가계도'다. 곡 씨의 가계(家系)를 그린 그 종이에는 월병의 기술을 전수한 가족들의 이름을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해 놔다. 가게 곳곳에는 월병 무늬를 찍어낼 때 사용한 나무를 등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도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복래춘은 처음에 공화춘(현 짜장면박물관) 근처에 있다가 50여 년전에 현재의 자리로 이전했다.

중국인들에게 원래 공갈빵과 월병은 간식거리가 아닌 제삿상에 올리는 귀한 음식이다. 곡 씨 가족이 만드는 과자들은 중국 산둥성 북방족의 맥을 고스란히 있는 것들로 대만에서 만드는 남방









4월은 과학의 달. 따사로운 날씨에 가족나들이가 늘어나는 때다. 올해는 초·중·고등학교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주말을 이용해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과 궁금증을 충족시켜 줄 과학 관련 전시관을 찾아가보자. 평상 시 궁금했던 과학원리, 체험을 통해 과학지식을 알아가며 미래 아인슈타인을 길러낼 좋은 기회다.

글. 이용남\_본지 편집위원 사진. 홍승훈\_자유사진가



## 과학 지식 쑹쑹 ‘미래 아인슈타인 나온다’



### 가스과학관 가스의 개념, 역사, 특성 배워

가스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천연자원이다. 가정에서는 물론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처가 무궁무진하다. 가스과학관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가스의 개념, 역사, 특성을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이다.

시설은 돔형 2층구조의 과학관과 88m높이의 원추형 크린타워로 구성되어 차세대 꿈나무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준다.

크린타워로 불리는 지상 13층 규모의 전망대는 가스불꽃 모양의 원추형으로 미래 과학을 상징하는 위대한 과학자와 함께하는 조형공간인 과학광장, 놀이를 통한 체험동산, 집회 장소인 놀이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전시장을 찾는 어린이들은 영상으로 천연가스의 특성을 배우고, 공기보다 가벼운 LNG(액화천연가스)와 공기보다 무거운 LPG(액화석유가스)의 차이점을 모형 가스통 실험을 통해 가스의 실제와 쓰임새를 아이들에게 생생히 보여준다.

관람시간은 약 70분 내외가 걸리고, 천연가스 생성, 액화, 수송, 운반, 공급, 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설명한다. 안전하고 깨끗하며 편리한 천연가스에너지의 모든 것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가스과학관은 30명 단위로 관람하며 홍보요원이 각 코너 설명과 안내를 책임진다. 관람은 사전예약 해야 한다.

**가는 방법** 인천지하철 동막역 3번 출구에서 과학관 셔틀버스 이용(사전예약 필수, 상시운행 안함). 문의 822-4492







### 인천학생과학관 신비한 우주세계 감상

‘니모를 보러갈까’, ‘우주선을 타러갈까?’ 2002년 4월 개관한 인천학생과학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수중생물, 화석, 공룡, 우주체험관, 천체투영실 등 과학과 관련된 각종 기구 체험시설을 갖춘 전국 최고의 과학관이다. 총 6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코너 224주제 301종목의 전시물을 볼 수 있다. 1층 꿈돌이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씨가 타고 우주를 날아갔던 우주로켓 모형을 볼 수 있어 아이들의 관심을 끈다.

인천학생과학관의 시설물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코너는 2층에 있는 천체투영실이다. 천체를 관람할 수 있는 의자에 누워 반구형의 커다란 돔 스크린을 바라보면 천상세계의 신비가 열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별자리를 감상하고, 무궁무진한 미래를 담고 있는 우주영화가 마법처럼 펼쳐진다. 천체투영실은 주말과 방학에만 운영되고, 1일 2회 상영한다.

중·고등 학생들이 교과서와 연관된 과학원리를 배우고자 한다면 3층 기초과학관을 가보자. 에너지, 힘, 전기, 인체의 구조를 직접보고 체험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변환되는 모습을 여러 효과 장치를 통해 보여주고, 미래과학관에서는 춤추는 미니로봇의 경쾌한 군무를 감상할 수 있다.

인천학생과학관은 화요일~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관람료 무료, 문의 880-0792

### 영흥화력본부 에너지파크 전기생성 원리 배워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전기, 에너지 산업의 발전 과정을 배우고 싶다면 영흥화력본부 에너지파크를 가보자. 이곳은 주 관람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에너지 산업과 전기원리를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구성했다.

1층 전력체험관은 주로 초등학교생과 유치원들을 위한 체험 공간이다. 그림자놀이를 통해 전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화력발전의 과정을 아이들이 발전기 통을 통과하면서 체험한다. 전자레인지 원리, 전기자동차의 실체모델, 아이들이 전기가 통하는 물체와 안 통하는 물체를 직접 실험하면서 물체의 성질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을 활용해 비행기가 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아이들의 흥미를 돋운다. 이곳은 놀이를 통해 전기발전의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에듀엔터테인먼트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2층 전시관은 전기와 인류문명의 발전사, 한국전력 120년 역사, 10년후 우리의 미래인 스마트그린시티의 현실이 전시되어 있다.

관람료 무료, 문의 070-8898-3000



### 인천어린이과학관 오감만족 프로그램 풍성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여 미래의 아인슈타인, 꼬마 뉴튼을 만들어 내는 인천어린이과학관. 쉽고 재미있는 놀이와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과 친하게 만들어 꿈을 키워주는 상상발전소다.

3~5세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인 무지개마을은 물, 얼음, 모래, 나무 등 자연소재를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풍풍풍 물방울, 뽕글뽕글 나무구멍, 사뽀사뽀 구름사이, 쓱쓱쓱 모래놀이 등 다양한 놀이로 유아들이 재미있게 과학을 배운다.

인체마을은 4~8세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다. 몸속 기관을 미로처럼 탐험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알고 인체를 이루는 각 기관과 역할을 배우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생활의 중요성을 알린다. 눈의 생김새, 혀와 치아의 역할, 오감골목길, 탄생터널 등 아이들이 즐길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를 배우는 지구마을은 생물과 지구가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 첨단 영상으로 사실감 있게 보여준다. 지구갤러리, 하나뿐인 지구, 에너지후계자, 지구의 숨은 보물, 그린실험실로 꾸며져 있다. 아이들은 수력, 조력, 풍력 발전의 원리를 배우고 직접 발전기를 손으로 돌리면서 에너지 발생 과정을 시연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인류의 피해과정도 생생히 보여줘, 아이들에게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얘기한다.

이외에도 도시마을에선 미리가본 영화같은 첨단도시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비밀마을에선 지구촌 각 나라의 의상, 생김새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체험한다. 이외에도 어린이과학도서관은 상설코너로 현장학습, 과학교실이 열려 아이들을 더 폭넓은 과학세계로 이끌고 있다.

과학관은 사전예약해야 관람가능. 현장티켓 발매 안함. 문의 550-3300







# 상쾌한 아침 여는 경쾌한 남자

글. 이웅남\_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_자유사진가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부드러운 중저음의 경쾌한 목소리로 인천의 아침을 여는 남자. 경인방송의 원기범(41) 앵커. 인천사람들의 세상살이, 시사정보, 날씨, 교통, 해양정보까지 인천만의 특화된 이야기, 알토란 정보,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끼리들을 모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황금시간대에 시민들에게 다가간다. 원 앵커가 진행하는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는 경인방송이 내세우는 간판 프로그램이다. 앵커의 인지도와 유명세도 있지만 게스트와 스스럼없이 호흡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진행솜씨에 시민들은 그의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조용한 박수를 보낸다. 매일 아침 두 시간의 방송은 베테랑 방송인에게도 쉽지 않은 분량이다. 시민에게 전달할 방송 정보에 대한 공부는 필수다. 신문, 인터넷, 각종 시사잡지, 인맥 등을 활용해 사전에 미리 내용을 파악하고, 공부하고, 더 깊은 내용은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 “아침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한 시사정보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시한번 우리방송에 시간을 내 주는 청취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경인방송은 인천의 유일한 민영방송이다. 올해 목표는 인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시민과 호흡하고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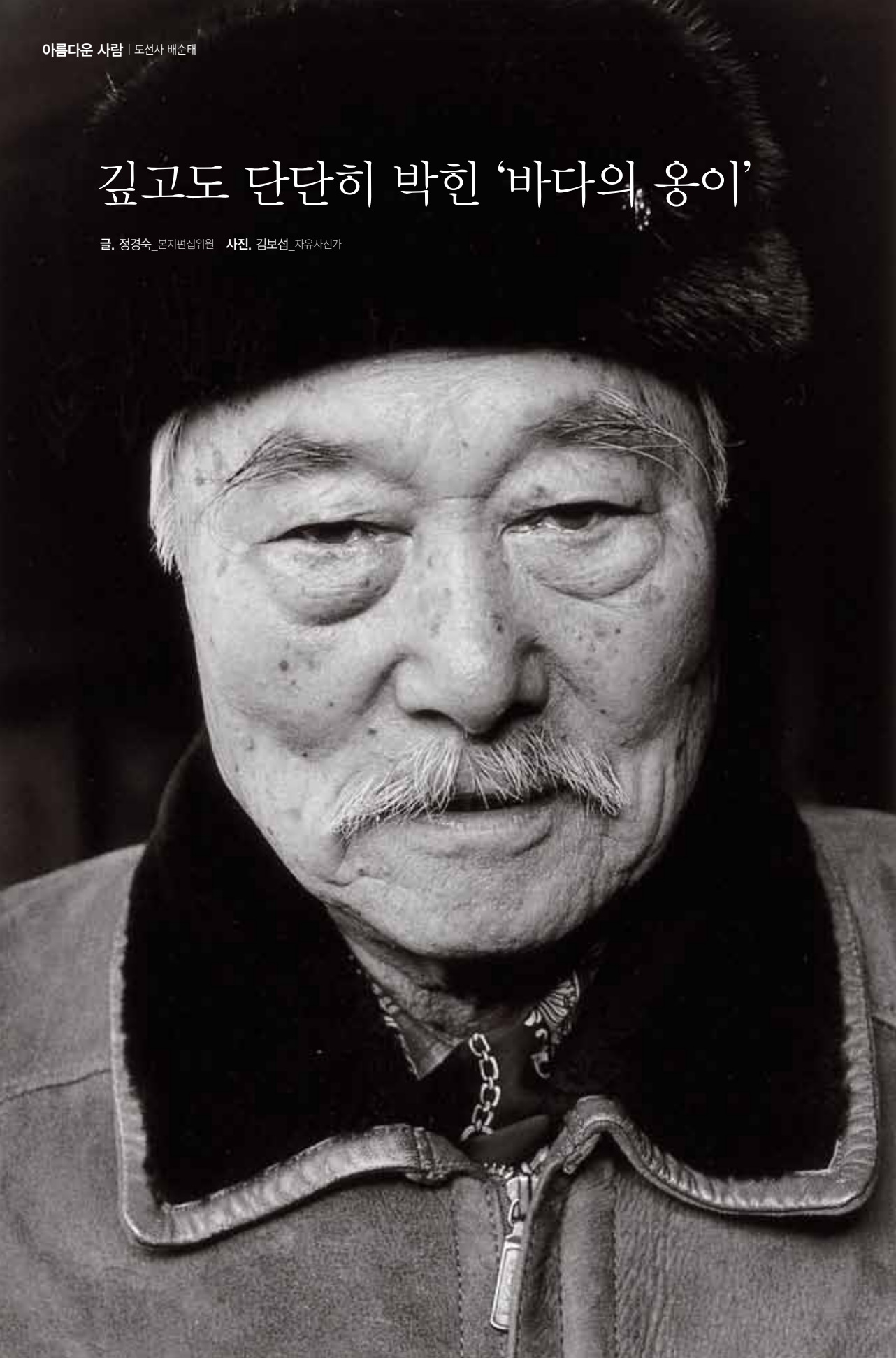
천과 동행하는 방송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인방송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열혈 청취자 10만 명 모으기 운동을 벌인다. 실제 듣는 시민은 더 많지만 진정 경인방송을 사랑하고 아끼는 청취자들과 인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방송, 지역과 밀착하는 방송이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다. 그에게 방송은 천직이다. 기독교 방송인 극동방송에서부터 시작된 방송과의 인연은 올해로 19년째다. 그중 12년간은 아침 방송을 해왔다. 신입시절 주안역에서 아침 5시 10분 첫차를 타고 서울의 방송국으로 출근해 밤 11시가 넘어 퇴근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방송일을 배웠고, 즐겼다. 이제는 중견방송인이 되어 마이크를 놓을 법도 하지만 그는 영원히 현장을 지키는 앵커가 되고 싶다. 외국의 유명한 앵커들처럼 흰머리 휘날리며 방송을 하는 것이 그의 꿈이자 미래다. 인천 토박이인 원 앵커에게 인천의 구석구석, 살아가는 시민들의 이야기, 인천의 발전상을 전달하는 것은 단순한 방송이 아닌 긍지이고 자부심이다. 더 힘있게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방송 때문에 새벽 4시 정도에는 일어나야 한다는 부담으로 저녁 모임을 거의 나가지 못하는 게 애로사항이라는 원기범 앵커. 시민은 방송에서 그의 상쾌, 경쾌, 통쾌한 목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열 수 있어 행복하다.





# 깊고도 단단히 박힌 ‘바다의 용이’

글. 정경숙\_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_자유사진가



아흔에 가까운 나이지만, 그는 지금도 영락없는 바다사나이다. 귀는 간혹 작은 소리를 놓쳐버리지만 한때 바다를 호령했을 목소리는 아직도 호기롭고 길결하다. 또 지팡이를 짚어야 걸음이 편하지만 큰 풍채에서 나오는 위엄은 세월도 어찌할 수 없다. 배순태(87). 그는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를 마시고, 바다에서 살다, 바다로 돌아갈 바다 사나이다.

도선사(導船士)는 선박을 안전하게 항으로 입·출항시키는 마도로스의 꽃, 선장 중의 선장이다. 배순태 용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선사 유항렬을 잇는 바다의 파일럿으로, 34년간 외길 인생을 걸으며 우리나라와 인천 항만의 발전을 이끌었다. 현재도 화수부두에서 선박회사 ‘홍해’를 운영하며 바다와의 인연을 놓지 않고 있다.

과연 정해진 운명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의 생은 바다를 품은 경남 창원에서 시작됐다. “왜정 말기였던 그때는 다들 못 먹고 못 살았지. ‘바다에서 태어났으니 바다에서 먹고 살자’ 싶어 무작정 배를 탔어. 지금도 여전히 바다에 있으니, 나하고 물하고 인연이 깊어.”

그는 진해상선학교와 진해고등해원양성소를 거쳐 해방직전 갑종(원양외항선박) 2등 항해사 자격증을 따고 곧 갑종 선장면허를 취득했다. 키를 잡은 때가 스물아홉이던 1954년, 당시 우리나라 최대규모인 7천톤급 외항선에 태국기를 펄럭이며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을 누비고 다녔다. “내가 조그마할 때 영국 가서 찍은 사진이다.” 사진은 목은 먼지 속 세월의 곱절만큼이나 빛 바랬지만, 그 안에서 꿈을 이룬 채 활짝 웃는 젊은 청년에게선 빛이 났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다시 시작됐다. 그는 5년 후인 58년 도선사면허를 취득해 일년 후 인천항에 정착했다. 당시에 도선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직업이었다. 늘 도전하며 살아야 직성이 풀렸던 그는, 간만의 차가 커 배들이 드나들기가 까다로운 인천항을 택했다.

도선사를 흔히 인간등대라고 한다. 아무리 노련한 선장이라도 도선사의 조언과 지시 없이는 배를 입·출항시키기 어렵다. 그는 지난 76년 밀 5만4천여 톤을 싣고 대기하고 있던 5만톤급 대형선박을 입항시켜 당시 밀가루 파동을 가라앉혔다. 다른 도선사들은 당초 이 대형선박이 인천항에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도선을 거부했었다. 지난 86년 평택항에 국내 최초의 LNG 인수기지가 완공돼 10만톤급 선박이 입항할 때는 이 선박의 처녀도선을 맡았다. 88서울올림픽 때는 동구권 선수단과 임원을 태운 소련선박을 도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많은 업적 중에서도 노장의 기억 속 가장 선명한 일은 우리나라 도선의 앞날을 연 것이다.

“74년, 5천톤급 이상 대형선박이 댈 수 있도록 현재의 인천 독이 확장, 개량됐지. 그때 정부가 외국도선사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걸, 당시 전국도선사협회회장이던 내가 앞장서서 반대했어.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일이야.”

해신, 인간등대, 해웅이라 불리는 사람. 그의 고향은 바다며 그가 잠들 곳도 바다다. 썰물과 밀물이 눈 앞에서 훤히 드나드는, 그렇기에 자신을 더욱 필요로 했던, 바로 인천의 바다다.





TALK  
TALK

App

## 시민과 함께 冊 책을 펼치다



2012년은 문화관광부가 정한 독서의 해다. 인천은 2011년부터 '책 읽는 도시 선포'로 도시의 격을 높이고 문화의식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계층별로 맞춤형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집 가까이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며 공공도서관의 장서수를 늘려, 시민이 책을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시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과 도서관정책팀과 시정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변인실(굿모닝인천)이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책 읽기 사업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크는 시청에서 지난 달 20일 진행했다.

글. 이용남\_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 토크 참여자

김명성 인천시 문화예술과 도서관정책 팀장, 백인자 미추홀도서관 과장,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박소희 작은도서관협회 고문, 이연희 책 읽는 시민

**김명성** 사회를 맡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도서관정책팀 김명성입니다. 우리시의 책 읽는 사업에 대해 조언과 고견을 주기 위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얘기할 주제는 인천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된 책 읽기 사업과 책 읽는 도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소희** 먼저 작년 우리시가 책 읽는 도시를 선포했는데 새로운 변화를 보는 것 같아 기뻐합니다.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책 읽는 시설이 있고, 그 불편은 없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책 읽는 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선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우리시 도서관별 특징을 잘 알아두면 자료나 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김명성  
인천시 문화예술과 도서관정책 팀장

**안찬수** 책의 도시 선포는 도시의 발전 방향이 건설경기를 바탕으로 한 토건사업 위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이 문화를 바탕으로 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천이 책 읽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도서관인프라와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고, 비전에 맞는 예산확보, 시민과의 공감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연희** 인천의 작은도서관에서 책읽기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시민에게 책을 배포하고 학교, 유치원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책을 선정하고 독





백인자 미추홀도서관 과장



이연희 시민

후활동을 했는데 동참하는 시민들도 생각보다 적고 책 선정도 어려웠습니다.

**백인자** 책 읽는 도시와 인천은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1950년 이후 인천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책읽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도서진흥을 위한 애쓴 흔적이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공공도서관이 현재와 같이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김명성** 우리시는 작년부터 책 읽기 사업을 전개하면서 2013년까지 도서관 60개 확충, 장서 30만권을 증서할 계획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다중집합장소에 무인도서관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민이 도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우리시의 책 읽기 사업의 잘된 점과 미진한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안찬수** 책 읽는 인천 만들기 사업을 통해 285만 인천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책 읽는 문화를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85만 시민이 사는 광역시에 걸맞는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업을 일회성, 일과성으로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세밀한 계획아래 산업정책을 책 문화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박소희** 책을 통해 인천이 문화컨텐츠가 풍부한 도시가 되어 사람들을 모이게 했으면 합니다. 순천은 기적의 도서관을 만들면서 기적의 도시가 됐습니다. 순천으로 사람이 모이고, 경제활동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인천시는 시민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책의 도시로 선포하면서 유네스코 등재를 우선으로 추진했던 게 아쉬웠습니다. 또 북카페도 시민의 이용이 적고 아직 인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숲속도서관도 자원봉사자를 우선으로 뽑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읽고 싶은 책을 갖다놔야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연희**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도서관은 단지 시험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기 위해 도서관을 가는데,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없어 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가곤 했습니다. 어느날 보니 동네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책도 보고, 놀고,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시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백인자** 작년에 바쁜 인천시민을 위해 굳이 도서관을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전철역이나 다중집합장소에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무인도서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설치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도서대출이 전년과 비교해서 11%가량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박소희 작은도서관협회 고문

**김명성** 우리시는 독서의 저변확대를 위해 북스타트(Start), 청소년을 위한 북그로우(Grow), 고령자를 위한 북피니쉬(Finish)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와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이연희** 작은도서관에서 북스타트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선착순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큼니다. 지원대상을 늘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합니다.

**박소희** 작은도서관 운동을 하면서 북스타트 활동을 연수구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은 시민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그로우운동은 사춘기, 청년기 삶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독서동아리나 책 읽기 활동을 통해 미래에 대한 사고,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힘을 기르게 할 것입니다. 북피니쉬 운동은 책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회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70 환갑에 자서전을 펴내고 싶습니다.

**백인자** 미추홀도서관은 11개 거점도서관과 연계해 올해부터 북스타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 꾸러미를 나눠주고 책읽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이들의 생각이 크고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인력센터와 연계, 도서교육 활동에 인력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안찬수** 북스타트 운동은 민관합작사업입니다. 작은 예산으로도 시민이 변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인천시가 책읽는 도시를 선포한 마당에 북스타트 운동은 불씨를 지피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책 읽기 프로그램을 생애주기 별로 만들고 이것이 불이 붙으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에까지 더욱 충실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 / 여 / 후 / 기

시민과 함께하는 책읽기 사업에 더 중점을 뒀야 할 것 같다. 보다

많은 시민에게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민을 하겠다. <김명성>

최근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개장했는데 유니티드 선수와 허정무 감독이 책을 한권씩 들고 포스터를 찍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축구전용경기장의 컨셉이 선수의 숨소리를 들을 정도로 관객과 가깝다는 것이기에 책과 시민도 밀접하다는 의미를 전달 할 수 있을 것 같다. <박소희>

인천이 책읽는 도시를 잘 구축하기 위해선 시민의 의견을 잘 듣고 소통하는 단계를 많이 만들기 바란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면 책 읽는 도시와 관련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시민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안찬수>

책 읽는 인천 만들기 사업 홍보가 잘 안된 것 같다. 취지도 설명하고, 운동도 벌여 시민들과 함께 나가야 한다. 이런일에 도서관이 첨병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백인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 책을 많이 읽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글을 터득하기도 한다. 잠자기 전 5~10분 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다. <이연희>





# 4월 공연·전시 Calend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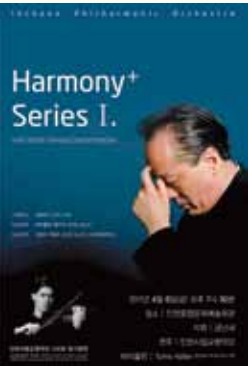
SUN	MON	TUE	WEN	THU	FRI	SAT
1	2	3	4	5	6	7
		NeoPI에 엘렉토오케스트라양상블 창단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2만원 ☎NeoPI에 엘렉토오케스트라양상블 471-2342  버블매직 환타지쇼 인천아리나과학관 오후 3시 / 1만2천원, 2만원 ☎070-4603-3565, 031-444-9135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무료초대 ☎인천정신보건센터 468-0916  버블매직 환타지쇼 인천아리나과학관 오후 3시 / 1만2천원, 2만원 ☎070-4603-3565, 031-444-9135	제3회 라이온스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Harmony + Series 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전석무료 ☎라이온스여성합창단 010-8735-2403  버블매직 환타지쇼 인천아리나과학관 오후 3시 / 1만2천원, 2만원 ☎070-4603-3565, 031-444-9135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16회 정기연주회(Harmony + Series 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시립교향악단 1588-2341  판소리 브레히트 <사천가>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R석 4만원, S석 3만원 ☎500-2000  버블매직 환타지쇼 인천아리나과학관 오후 3시 / 1만2천원, 2만원 ☎070-4603-3565, 031-444-9135	6대광역시 화합의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성인 1만원, 학생 7천원 ☎인천음악협회 873-7772  뮤지컬 알라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원 ☎J엔터컴 1566-7356  버블매직 환타지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5시 / R석 4만원, S석 3만원 ☎500-2000  버블매직 환타지쇼 인천아리나과학관 오후 12시, 2시, 4시 / 1만2천원, 2만원 ☎070-4603-3565, 031-444-9135
8	9	10	11	12	13	14
뮤지컬 알라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시, 3시 전석 2만원 ☎J엔터컴 1566-7356  버블매직 환타지쇼 인천아리나과학관 오후 12시, 2시, 4시 / 1만2천원, 2만원 ☎070-4603-3565, 031-444-9135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그름 아나야' 공연 인천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오후 4시 / 무료(사전예약) ☎440-6735		크로스오버 퓨전팝스 오케스트라 세종국악관현악단의 '신나는 국악 여행'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 전석 3천원 ☎505-5995  버블매직 환타지쇼 인천아리나과학관 오후 3시 / 1만2천원, 2만원 ☎070-4603-3565, 031-444-9135	버블매직 환타지쇼 인천아리나과학관 오후 3시 / 1만2천원, 2만원 ☎070-4603-3565, 031-444-9135	뮤지컬 후크선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 일반 1만5천 ☎한국예술경영협회 811-0650  버블매직 환타지쇼 인천아리나과학관 오후 3시 / 1만2천원, 2만원 ☎070-4603-3565, 031-444-9135	2014년 아시안게임 성공개회를 위한 인천시민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인천YMCA 431-8161  버블매직 환타지쇼 인천아리나과학관 오후 3시 / 1만2천원, 2만원 ☎070-4603-3565, 031-444-9135	NANTA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주)피엠씨프러덕션 1566-7674  40주년 기념 제16회 ENZIAN 요들클럽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인천ENZIAN요들클럽 010-8421-4765  국립합창단과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인천화성교육문화회관 2층 씨리재홀 오후 4시 / 전석 6천원(학생 무료) ☎760-3455
15	16	17	18	19	20	21
NANTA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1시, 4시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주)피엠씨프러덕션 1566-7674  미술사 오은영의 매직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5만원 ☎대웅상사 02-558-4588	버블매직 환타지쇼 인천아리나과학관 오후 12시, 2시, 4시 / 1만2천원, 2만원 ☎070-4603-3565, 031-444-9135	불맞이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인천음악문화회 429-0248  MY...history of life 나의 인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VIP석 15만원,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Sens 02-749-8821	KEPCO 청림50주년기념 회랑 · 사랑나눔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서울내서남심포니오케스트라 02-576-3332  커피콘서트II 금난새가 전하는 사랑의 언어 공개방송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2시 / 전석 1만원 ☎인천&이츠 1588-2341	합림콘서트 (하림과 집사&피쉬 오케스트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전석 1만5천원(직장인 20%할인) ☎500-2000  경인방송 '백영규의 가고 싶은 마을' 공개방송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 전석 3천원 ☎505-5995	제31회 장애인 날 기념식 및 한마음축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 무료 ☎인천장애인재활협회 438-0420  내용은 소중해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50분, 오후 4시 전석 1만5천원 ☎극단상상 010-2898-0014	내용은 소중해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1만5천원 ☎극단상상 010-2898-0014  팝 & 클래식 콘서트 인천화성교육문화회관 아이공연장 오후 4시 전석무료 ☎760-3455
22	23	24	25	26	27	28
송도청소년교향악단 제7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무료 ☎송도청소년교향악단 816-7257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그름 아나야' 공연 인천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오후 4시 / 무료(사전예약) ☎440-6735		제1회 러시아음악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무료 ☎세실예술기획 02-583-6295	제30회 국제라이온스협회 354-F(인천)지구연구차대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1시 / 초대 ☎(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4-F (인천)지구 887-7971  아카데미 타악 앙상블 '두들 두들 쥬쥬 콘서트'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 전석 3천원 ☎507-5996	2012년도 제122주년 세계노동절기념대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30분 / 초대 ☎한국노동총연맹본부 437-8501~3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A석 3만3천원, B석 2만2천원 ☎500-2000  두들쟁이 타악과 함께하는 여행유발 콘서트(여행의 시작)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 전석 3천원 ☎505-5995	인천시립무용단 제75회 정기공연 <인천대나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 R석 1만원, S석 5천원 ☎시립무용단 1588-2341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A석 3만3천원, B석 2만2천원 ☎500-2000	이미지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9만 9천원, S석 7만 7천원 ☎C.헬로비전 070-8130-2244  인천시립무용단 제75회 정기공연 <인천대나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R석 1만원, S석 5천원 ☎시립무용단 1588-2341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A석 3만3천원, B석 2만2천원 ☎500-2000
29	30					
제15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일반 1만원, 학생 7천원 ☎인천음악협회 873-7772  기차길열차음악회 2012년 정기공연 '우리야 원하는 세상'은 인천화성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무료 ☎기차길열차음악회 766-1969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16회 정기연주회  
《Harmony + Series I》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토모첼라’ & 드보르작 신세계 교향곡

인천시립교향악단이 2012년에 새롭게 선보이는 '하모니 플러스 시리즈'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초청해 함께 꾸미는 무대다. 4, 11, 12월에 각각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악장 토모첼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악장 데이비드 킴,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미셸 킴이 내한해 악장 및 협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4월 첫무대의 악장이자 협연자인 토모첼라는 독일 뉘른 국립음대와 미국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 1997년 국제 브람스 콩쿠르 1위와 1998년 독일 베를린 음악 콩쿠르 대상을 수상하며 독일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자리 잡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보헤미아의 민족적 악상을 자유분방하게 담아 넣은 드보르작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를 인천시향과 함께 연주한다. 금난새 예술감독이 각별히 애정을 담아 마련한 이번 무대는 단원들의 예술적 경험을 확대 시키는 동시에 관객들에게 수준 높은 연주를 선사할 것이다.

일시 4월 6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판소리극  
《사천가》  
우리의 소리, 우리의 흥으로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인의 기립박수를 받았던 바로 그 《사천가》!  
2011년 판소리의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킨 <역척가>의 콤비 연출가 남인우와 소리꾼 이자람이 만들어낸 첫 번째 작품, <사천가>가 드디어 인천의 관객들을 찾아온다.  
판소리는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린 포복절도와 감동의 판소리극 <사천가>는 “얼싸구! 좋~다!” 절로 튀어나오는 추임새로 모두가 하나되는 신명나는 놀이판이다.

브레히트의 대표적인 서사극<사천의 선인>을 21세기 한국적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사천가>는 현실의 우스꽝스럽고 한심한 세태를 시원스레 꼬집고 아우르며, 7년간 매 해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해왔다. <사천가2012>은 그 어느 해보다 완벽한 모습으로 동양과 서양, 고전과 현대를 넘나들며, 판소리 고유의 매력과 함께 독특한 젊은 감각의 진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일시 4월 6일(금) 저녁 8시, 4월 7일(토) 오후 5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의 500-2000



커피콘서트 II  
《금난새가 전하는 사랑의 언어》

자신의 삶을 창의적으로 바꾸고 다양한 문화 활동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커피콘서트>는 다양한 장르의 뛰어난 아티스트들의 무대와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삶에 활력을 주는 공연이다. 여유

로운 평일 오후 2시, 전석 1만원이라는 놀라운 가격과 갓 뽑은 신선한 커피향은 관객이 뽑은 커피콘서트만의 매력이다.  
두 번째 무대에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금난새 지휘자가 봄바람처럼 따스한 사랑의 언어를 음악으로 펼쳐 보인다. 최고 실력의 인천시립교향악단 멤버로 구성된 실내악 주자들과 협연자들의 유려한 연주로 비발디의 「사계」 중 '봄'과 세련되고 우아한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금난새 지휘자의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치 있는 해설이 추운 겨울 동안 얼어붙은 감성을 깨어나게 할 것이다.

일시 4월 14일(수)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인천시립무용단 제75회 정기공연  
《인천대나래》

손인영 예술감독의 취임 후 첫 무대인 인천시립무용단의 제75회 정기공연 <인천대나래>는 전통적으로 대중과 가장 친숙한 마을 축제의 근원을 담은 '나래'를 현대에 되살려 신명과 흥 뿐 아니라 그를 통한 제의적 의미를 현대에 되살려낸 작품이다.  
고려 초 궁중에서 열렸던 축하의식인 '나래'는 잡귀를 쫓아내고 복을 부르는 제화초복의 연례행사였다. 제의적 성격의 나래는 시간이 흐르며 점점 놀이의 특성을 강하게 띄게 되었고 후에 연희인 산대잡극으로 정착하여 조선시대까지 지속됐다.  
나래의 의미를 현대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인천대나래>는 액을 몰아내는 제의적 무대를 통해 생성된 새로운 에너지로 도약하는 인천의 미래를 여는 시원한 한 판이 될 것이다.

일시 4월 27일(금)~28일(토) / 27일 오후 8시, 28일 오후 5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 구한말 현미경으로 인체 신비 확인

글. 김윤식\_사인 사진. 홍승훈\_자유사진가



21일이 과학의 날이니 이번 4월호에서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과학 문물들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래로 우리 조상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 정신은 경주 첨성대가 상징하는 천문학, 역학(曆學), 목판 인쇄술의 발명,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 등 찬란한 것이었다. 조선 세종 때에는 천문학 연구기관인 서운관(書雲觀)을 설치해 혼천의(渾天儀), 앙부일구(仰釜日晷), 자격루(自擊漏), 측우기 등을 만들어 백성들의 실생활 편리 도모와 농업 생산을 크게 이롭게 했다. 과학 문물 중에는 1603년에 들어온 리치(Ricci,M.)의 『세계지도』가 최초로 조선 학자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했다. 이어 1631년에는 망원경과 자명종, 서구의 천문, 지리학서 등이 도입되는데 『성호사설』을 쓴 실학자 이익(李瀾)은 ‘공자(孔子)가 다시 태어나도 서양과학을 수용하리라’며 그가 접한 서양 과학을 높이 평가했다. 또 실학자 홍대용(洪大容)은 서양과학서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지전설(地轉說)을 생각해 내었고, 정약용(丁若鏞)은 빛의 굴절을 이해하여 렌즈와 함께 원시, 근시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놓았다. 1881년 청나라 영선사(領選使)로 갔던 김윤식(金允植)은 천문,

지리, 수학, 물리, 화학, 항해, 증기기관, 채광, 야금, 화약 등 각종 과학기술서적 53종을 수입해 왔고, 유길준(兪吉濬)은 1895년 『서유견문(西遊見聞)』을 통해 서양의 문물, 제도를 소개했다. 근대 과학기기인 ‘망원경’은 천리경(千里鏡), 혹은 원시경(遠視鏡)이라고도 불렀는데 1631년에 부연사(赴燕使) 정두원(鄭斗源)이 북경에서 서양 선교사 로드리게스(Rodriguez J.)로부터 기증받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최초의 도입이다. 천체망원경으로는 인천에 있었던 총독부관측소(總督府觀測所)의 지름 6인치(15cm) 굴절망원경이 최초였다. 아주 훗날의 일이지만 망원경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1902년 12월 17일 오후 4시 30분에 인천에 주재하던 가등(加藤)이라는 자가 자기 나라 ‘임(林) 공사’에게 내



장원경(內藏院卿)을 지낸 친러파 대신 이용익(李容翊)의 동태에 관해 감시 보고 전문(電文) 내용이 전한다. “러시아 군함 탑승 목격 확인 건”으로 되어 있는 이 전문은 “이용익이 러시아 군함에 탄 것은 그를 알아보는 당관(當館) 소속 산내(山內) 순사가, 그가 러시아 공사와 함께 군함의 소형 증기선으로 갈아타는 것을 목격하고, 더욱이 그 소형 증기선이 그대로 러시아 군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망원경으로 확인한 것이므로 확실함.”이라며 망원경 확인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당시 일본은 러시아를 몹시 견제하고 있던 터라 이렇게 한러 관계에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나침반은 2000여 년 전, 중국에서 발명된 것으로 사남(司南)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자기를 띤 ‘천연 자석을 국자모양으로 깎아 매끄럽고 광택나는 석판이나 청동판 위에 올려놓으면 저절로 움직여 항상 국자의 손잡이는 남쪽을, 우묵한 국자 머리 부분은 북쪽을 향했는데, 학자들은 중국인들이 북극성과 나란히 북두칠성이라는 별자리에 대한 애정 표시로 일부러 국자 모양을 선택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나침반은 작동 원리에 따라, 지구의 자기성(磁氣性)을 이용하여 자침으로 방위를 지시하는 자기나침반과, 지구의 자전성(自轉性)을 이용하여 고속회전의 자이로로 지북성(指北性)을 갖는 자이로 나침반의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자기나침반 외에도 광복 이후 고속 회전하는 자이로 축에 추를 달아서 지구 자전축을 지시하게 한 자이로나침반이 도입되어 현재 대형선박 등에 사용하고 있다. 현미경은 한말에 서양문물과 함께 도입된 것으로 보는데, 1866년



최한기(崔漢綺)가 지은 『신기천험 身機踐驗』에는 그가 청나라에 갔을 당시 그곳에서 현미경으로 남성의 정자(精子)를 보았다는 희한한 내용이 있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현미경의 도입이 한말 때보다 훨씬 전일 가능성이 있다. 지구의(地球儀)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우 1267년에 아라비아에서 가져온 모형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중국 천주교계의 학자로 알려진 황비묵(黃斐默)의 『정교봉포(正教奉褒)』에 ‘여지구(輿地球) 1대’ 운운하는 구절에서 그 도입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인즉 인조 때 볼모로 청나라에 잡혀 간 소현세자(昭顯世子)가 1645년 봄 ‘여지구’를 서울로 가져 왔다는 것인데 아무튼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 된다. ‘여지구’는 바로 지구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과학기기가 있으나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 등이 확실하지 않아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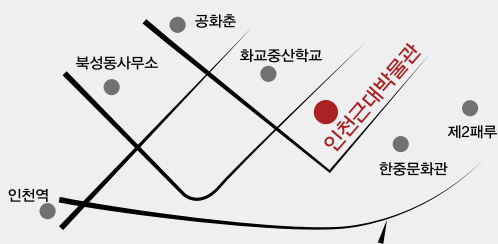


1 스테레오뷰 사진을 입체(3D)로 보여 줌, 100여년전 제품  
2 실내용쌍안경 60년대, 클래식 공연 감상시 사용  
3 현미경 70년대  
4 측량기 육상용, 50년대  
5 망원경 일제  
6 해양관측용측량기 일제



별난 역사, 별난 물건 시리즈에 게재된 과학문물 관련 물건 및 사진은 중구 차이나타운에 있는 인천근대박물관(관장 최웅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엔 희귀한 근대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료는 성인 2천원, 학생 1천원.

문의 764-1988



공화춘  
북성동사무소  
화교중산학교  
제2패루  
한중문화관  
인천역



유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후보 도시 확정



우리시가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도시가 됐다.

지난 3월 13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유엔 GCF 사무국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인천이 서울을 제치고 국내 후보 도시로 최종 확정됐다.

우리시는 친환경 이미지와 외국인 정주에 유리한 도시 환경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쟁 도시인 서울을 제쳤다. 시는 국제기구 전용 건물로 신축 중인 송도 아이타워(I-Tower)를 무상 임대하고 컨벤션 센터인 송도컨벤시아 사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최초의 기후변화 특화 기금으로, 녹색 · 기후 분야의 주요 국제기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진국은 2010년 11월 GCF 설립을 합의했고, 2020년까지 1천억 달러(약 115조원)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GCF 사무국은 이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이 사무국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우리나라와 독일, 중국, 멕시코, 스위스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GCF 유치는 올11월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시는 사무국을 유치할 경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적 ·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 시 환경정책과 ☎440-3431

송시장 "재정난 교통분담...직책수당 반납"

송영길 시장이 시의 재정난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4월부터 직책수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송 시장의 올해 남은 직책수당 8백55만원(월 95만원)은 시 예산으로 전환된다. 시장 연봉(1억원 가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송 시장은 또 지난해 업무추진비를 당초 책정된 예산(1억7천820만원)의 48.3%인 8천611만원만 지출했다. 전임 시장들이 책정된 업무추진비의 90%인 1억6천700여만원을 쓴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송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강화군 구제역 방역활동 직원 격려 3백만원, 삼성바이오 송도 유치 부서 직원 격려 1백만원, 추석 비상근무자 격려 1백50만원 등 대부분 직원 격려에 쓰였다. 우리시는 재정난을 덜기 위해 고위공직자와 직원들의 각종 수당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의 : 시 총무과 ☎440-2502

교육청, 0~2세 장애영아 무상 교육

시 교육청은 올해 0~2세의 장애 영아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3세 이상의 장애 유아에 대해선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장애 영아 무상교육은 장애 조기 발견과 교육을 통해 장애를 교정하거나 경감하고 나아가 2차 장애를 예방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복지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7개 특수학교와 6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영아 학급을 편성하거나 가정이나 복지시설을 순회하며 부모 상담, 장애 치료, 놀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5세 장애 유아에 대해선 공립 유치원의 경우 월 9만원의 학비를, 사립은 36만1천원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중증 · 중도장애학생을 위한 가정방문 순회교육, 장애 정도와 사정에 따른 학생별 맞춤교육, 일반 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 통합교육 내실화, 장애학생 진로 · 직업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인천시교육청 ☎420-8181

대기업 미납 등록세 6억8천만원 징수

우리시는 건물을 신 · 증축한 뒤 등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등록세를 내지 않던 대한생명보험(주)과 롯데쇼핑(주)으로부터 등록세 6억8천만원을 최근 거둬들였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대한생명보험은 2005년 3월 부평구 부평동 529-15 건물(연면적 3만6천690여㎡)을 완공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최근 시의 미등기 건물 일제 조사에서 적발돼 미납 등록세 4억6천100만원을 납부했다.

롯데쇼핑 역시 2009년 5월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2개 층(6천780여㎡) 증축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다가 이번 조사에서 걸려 2억1천800만원의 등록세를 냈다.

시는 2000년 이전에 신 · 증축한 건물도 이런 미등기 등록세 체납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10개 군 · 구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 시 세정과 ☎440-2545

“우리 가족을 전시?” 박물관 이색전시회

검단선사박물관은 가족의 소중한 물품을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을 전시해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은 우선 전시기획, 디자인 등 큐레이터의 기초 업무를 배운 뒤 전시실을 관람하면서 실제 전시 사례와 방법을 익힌다.

이후 각 가족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을 전시 유물로 정하고, 이름표와 패널을 제작해 박물관 진열장에 전시한다. 전시물은 한 달 간 전시되고 참가비는 없다.

박물관은 3~6월, 9~12월 매월 넷째 주 일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박물관 홈페이지(sunsaincheon.go.kr)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 검단선사박물관 ☎440-6790

길병원과 자매우호도시 의료지원 협약

우리시와 가천대길병원은 지난 3월 8일 아시아권 자매우호도시 의료지원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우리시는 자매우호도시 시민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술 대상자를 선정해 초청하고 기타 제반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길병원은 수술치료와 관련한 일체 비용을 지원한다. 길병원은 우선 올해 필리핀 마닐라시 3명, 인도네시아 반튼주 6명, 몽골 울란바토르시 6명, 베트남 하이퐁시 2명 등 총 17명에 대한 심장병 수술을 할 예정이다. 길병원은 앞서 2007~2011년에도 아시아권 심장병 환자 43명에 대해 무료로 수술을 지원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440-3203

아시아드 선수촌 · 미디어촌 착공

우리시는 지난 3월 23일 남동구 구월동 구월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가할 선수들과 임원, 취재기자들이 사용할 선수촌과 미디어촌 기공식을 열었다.

인천도시공사가 시공을 맡을 선수촌과 미디어촌은 84만900여㎡에 아파트 3천720가구, 임대아파트 2천107가구, 단독 주택 15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16년 6월 완공될 예정인 이 단지 가운데 3천332가구가 선수촌으로, 1천147가구가 미디어촌으로 이용된다. 이곳은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꾸며지며, 인천지하철 1호선, 제2경인고속도로 등이 통과해 교통망도 좋은 편이다.

도시공사는 우선 오는 5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2천 186가구를 분양하고 9월에 나머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문의 : 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440-4142

일자리대책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상 수상

우리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11년도 지역 일자리 대책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 일자리 대책 종합평가는 지역의 책임있고 창의적인 일자리 대책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평가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 성과를 민간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지역고용자문단이 평가하여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우리시가 이번 지역 일자리 대책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그동안 ‘청년 일자리 메카 인천 실현’을 민선 5기 3대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국내외 대기업 유치와 신성장 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안사업을 직접 챙긴 결과다.

문의 : 시 경제수도추진본부 ☎440-4232

만석 · 화수부두에 수산물 유통시설 착공

동구는 만석 · 화수부두 수산물 직매장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기공식을 열고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만석부두에 지상 1층짜리 수산물 직매장(면적 170㎡)을, 화수부두에 1층짜리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면적 240㎡)를 각각 짓는 내용으로, 오는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곳에서 어민들이 직접 잡은 수산물을 판매 · 위판할 수 있게 하고, 철마다 수산물 축제를 열어 주꾸미, 꽃게, 새우젓 등으로 특성화된 수산물 시장으로 가꾸는 것이 동구의 계획이다.

동구는 60~70년대 인천 대표 어항(漁港)이었던 만석 · 화수부두의 명성을 되찾고 중 · 동구 지역의 새 관광명소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해왔다.

문의 : 동구청 ☎770-6398



<p><b>미국 캘리포니아 주요 인사와 경제협력 논의</b></p> <p>송영길 시장은 지난 3월 18일 시청사 접견실에서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지사, 미국 내 최초의 한인 이민 1세대 시장인 강석희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 시장을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p> <p>강석희 시장 등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미국 내 한국 최대 교역 파트너인 캘리포니아주와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초청으로 방한했다.</p> <p>이들은 송도·청라국제도시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캘리포니아주 기업인들이 투자하는 협력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으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를 둘러봤다.</p> <p>문의 : 시 경제수도정책관실 ☎440-3272</p>	<p><b>연평도 사건 다룬 백서 발간</b></p> <p>웅진군은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전반을 다룬 백서를 포격 도발 2년을 맞아 올해 발간한다.</p> <p>웅진군은 지난해 10월부터 5천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백서 편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말에는 완성된 백서를 내놓을 계획이다.</p> <p>백서 편찬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맡았다. 백서 발간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도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p> <p>웅진군은 백서가 발간되면 조직 내부에 공유해 매뉴얼로 활용하는 한편 주요 관련 기관에 배포해 안보 교육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p> <p>문의 : 웅진군청 ☎899-3912</p>
<p><b>보안업체 ADT캡스, 5월 인천 송도 입주</b></p> <p>세계 최대 보안전문기업인 ADT의 한국 법인 ADT캡스가 송도국제업무단지(송도IBD)로 5월 중 이전한다.</p> <p>ADT캡스는 이를 위해 송도IBD를 개발중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IBD의 업무빌딩인 센트로드로 이전 입주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p> <p>ADT캡스는 새로 정비될 R&amp;D센터에 국내 ADT캡스 기술 개발진 외에 ADT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구진을 파견해 아시아 동시 런칭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이다.</p> <p>브래드 벅월터 ADT캡스 대표는 “공항 접근성과 완벽한 정주환경으로 연구 개발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송도 R&amp;D센터로 이전하게 됐다”며 “ADT캡스의 R&amp;D센터 이전을 시작으로 향후 ADT의 계열사나 지역 본부 등도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p> <p>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083</p>	<p><b>국내 최초 국제화물항공사 설립</b></p> <p>우리시가 국내 최초로 국제화물항공사 설립을 추진한다.</p> <p>국내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가 항공사들이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고 있지만 국제항공화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항공사가 설립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p> <p>시는 러시아 극동지역을 전문으로 운항하는 화물전용 항공사를 민간기업과 함께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6일 성광에어서비스와 국제화물항공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p> <p>성광에어서비스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사할린 등 극동지역에 화물을 배달하는 전문 업체다. 성광에어서비스는 자본금 50억~70억 원으로 가칭 '인천항공'을 설립하고 오는 12월 극동러시아 신규 노선에 화물기를 취항한다는 구상이다.</p> <p>문의 : 시 해양항공정책과 ☎440-4831</p>
<p><b>줄기세포로 ‘맘모스’ 복제 앞당긴다</b></p> <p>우리시 주최로 제1회 한·러 맘모스 복원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러시아 야쿠트맘모스 특별전시장’에서 열렸다.</p> <p>한국사하맘모스조직위원회(위원장 구천서·강덕수)와 수암생명공학연구원(원장 황우석)이 주관한 이날 심포지엄은 인천시와 러시아 정부 간 우호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열렸다.</p> <p>황우석 박사 연구팀의 양일석 서울대 명예교수, 러시아연방 과학 아카데미 맘모스 분과위원장 바실리 바실예프 박사 등 한국과 러시아 석학 9명은 심포지엄에서 맘모스 복원 가능성과 현실적인 복원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p> <p>사하맘모스조직위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연구진이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맘모스 복제 연구를 위해 맘모스 유전자(DNA)를 제공할 예정이다.</p> <p>문의 : 인천시립박물관 ☎440-6732</p>	<p><b>FTA 발효 대응방안 수립</b></p> <p>우리시는 지난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각종 산업 분야의 지원계획을 포함, FTA 활용 및 대응계획을 추진한다.</p> <p>시는 FTA 발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웠다. 특히, 원산지 확인 작성, 원산지 관리사 양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실무활용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또 해외진출 전략 설명회, FTA 컨설팅을 통해 FTA 기반을 구축하고 비전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p> <p>아울러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가축분류 자원순환 농업 육성, 강화섬 약썩 한우 브랜드화 육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p> <p>시는 이밖에 경제수도정책관실에 FTA 지원팀을 신설, 한미 FTA가 인천시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p> <p>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254</p>

<p><b>대한항공,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공식 후원</b></p> <p>대한항공이 2014년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공식후원사로 나섰다.</p> <p>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오후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자문회의가 열리고 있는 태국 방콕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김영수 위원장과 조양호 한진그룹회장, 알사바 OCA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항공과 항공서비스분야에서 대회 최고등급인 프레스티지 파트너급 후원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p> <p>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대한항공과의 후원협약이 정식으로 체결되면 인천조직위는 항공권 및 수하물 등 항공과 관련된 부분 후원을 받게 되며, 대한항공은 공식후원 명칭 및 마크사용, 공식후원사 그룹 표시 광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p> <p>문의 :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458-2372</p>	<p><b>전 직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b></p> <p>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 산하 전체 공무원 2천9백38명을 동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여름 휴가철과 을지호련 기간인 7~8월을 제외하고 오는 12월13일까지 계속된다.</p> <p>차량 조회를 통해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번호판을 차에서 떼낼 예정이다. 영치 대상 차량은 5만4천250대로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총 403억4천600만원에 이른다.</p> <p>체납 1건 차량은 납부안내문을 부착하고 2건인 경우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한다. 또 1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차량 또는 대포차량일 경우 강제 견인조치할 예정이다.</p> <p>한편 우리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03억2천400만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의 39.3%를 차지하고 있다.</p> <p>문의 : 시 세정과 ☎440-5983</p>
<p><b>강재규, 송승환, 금난새 인천AG 개·폐회식 꾸민다</b></p> <p>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 자문역할을 담당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p> <p>개·폐회식자문위는 영화감독 강재규 등 문화계 인사와 금난새 등 음악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영상 및 IT, 무용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p> <p>조직위는 개·폐회식자문위 구성을 계기로 2013 실내무도 AG와 2014 인천AG 개·폐회식 주제 및 문화공연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대형사 공모 선정 후 프로그램 제작에 돌입할 계획이다.</p> <p>문의 :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458-2322</p>	<p><b>송도국제도시 활성화를 위해 인천 3개 기관 MOU</b></p> <p>인천 지역 3개 기관이 송도국제도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p> <p>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 26일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등과 함께 송도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고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송도국제도시 이용 활성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p> <p>경제청 관계자는 “각 기관들이 송도국제도시의 센트럴파크 등에 대한 관광객 유치에 위해 함께 협력했다는 점이 의미깊다”며, “송도국제도시의 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254</p>



## 보고싶은 책, 이제 손 안에서 무료로 본다

굳이 도서관이나 서점을 가지 않아도 보고싶은 책을 손쉽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적어도 인천시민이라면 앞으로 원하는 책을 마음껏 손 안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인천시도서관협회는 지난 3월 23일부터 공공기관과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e-book 전자도서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book 전자도서관시스템’은 인천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기관 11곳과 부평역 등 지하철 역사 8곳에 설치돼 있으며, 터치스크린방식의 무인 단말기에서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한 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시키면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북(e-book)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인천시민을 비롯해 인천지역 학생이나 직장인 누구나 인천도서관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빌린 전자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1주일 뒤 자동 삭제된다.

문의 : 인천시도서관협회 ☎472-8177



# Council News

## 학교폭력대책 시민 대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3월 9일(금)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교사·학부모·학생·시민단체 및 시와 교육청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없는 행복한 교실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기홍 부의장의 진행으로 ‘학교폭력대책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온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과 학생지원전담체계 구축,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교원연수 등 학교사회복지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곽은주 관교중학교 교사는 “교사에게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태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학교의 중심에 있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미경 구월중학교 전문상담교사는 “가해자에게도 징계보다는 치료와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적이며 접근적인 상담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종철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사무국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와 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 재정위기 해소, 의회도 동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3월 23일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절감계획에 따라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지침상 정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및 월 정수당,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를 제외한 비목 25% 절감 계획을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국내여비 중 타시도의회 비교 시찰 경비 30% 감액(8백4십만원), 국외여비 해외출장 및 우호도시 교류행사 경비 20% 감액(1천7백9십7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회의비 등 27.4%를 감액(7천6십8만원)했다.

한편, 공무원 수당 절감계획에 맞춰 의원복 지포인트의 30%를 절감한다.



## 다수인 민원 현장방문

인천광역시의회는 의회에 제출된 다수인 민원을 현장에서 주민 의견으로 경청하고, 대규모 시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점검했다.

지난 3월 22일 의장, 김병철 건설교통위원장, 지역구 의원인 신현환·배상만·이재병·이수영 의원 등으로 현장방문단을 구성, 남구 송의2동에 소재한 우진3차아파트와 부평구 부평3동에 소재한 부안고교 재건설 및 백운역광장 조성사업 지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우진3차아파트 주민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시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향후 해당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했다.



##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월 23일(목) 오전 10시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13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홍 부의장 주제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구 주경기장국비 확보’ 외 2건의 주요 현안사업과 노현경 의원(기획,교육행정위)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방안’ 홍성욱 의원(기획행정위원장)의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에 따른 국비지원”에 대한 설명과 토의가 있었다.



## 모범선행시민 이종의씨 표창 수여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3월 2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모범 선행시민 이종의(75세, 서구 신현동)씨를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종의 씨는 평소 봉사정신으로 원적산 등산로 정비 및 연탄 배달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클린 서구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인천시의회의 모범시민으로 선정됐다.



## 관광객 유치 활성화차원 아라뱃길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경인아라뱃길 개통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아라뱃길 현장을 방문했다.

방문현장에서 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 시행주체인 수자원공사와 소관부서인 관광진흥과로부터 아라뱃길 사업현황 및 관광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현지시찰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인 인천동막초, 석정중학교를 현지시찰을 했다.

정부의 스마트 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교육인 디지털 교과서 시범운영을 점검했으며, 추진상 문제점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학교의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고,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도 직접 시연했다.

## 영유아 무상교육 지방재정부담 해소대책 촉구 성명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영유아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해소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인천광역시의회 류수용 의장은 중앙정부가 2012년도 예산안에 영유아 무상보육예산 증액에 따른 재원 중 40~50%를 지방정부와 사전에 협의도 없이 부담시켜 국비 3천 697억원을 증액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당장 3천697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이 지방재정 부족 때문에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여·야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지방분담금 보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안은 의무적으로 지방정부와 사전협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금연 Halleh(할래)!

그림. 안종만



글. 신원수\_세인한의원 원장

## 봄의 불청객 알레르기성 비염

환절기만 되면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통 비염이 만성화되거나 알레르기로 오는 경우는 쉽게 낫지 않고, 재발하기도 쉽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질병 중에 하나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연, 비구 등의 증상이 바로 비염에 해당된다. 비염의 주요 증상으로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나 눈 주위의 가려움 등이 있다.

비염 중에서도 알레르기 비염은 특히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알레르기 비염은 주변 환경 요인에 따라 증상이 심해지거나 재발이 잘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관리를 통해 비염을 일으키는 원 인물질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악화요인을 피해야 한다. 또한 증상이 조절되더라도 재발과 합병증을 막기 위해 꾸준한 치료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먼지, 온도의 변화, 담배연기나 매연, 화장품, 스트레스 등을 피하고 주변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 꽃가루가 많은 계절에는 창문을 닫고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애완동물이 원인인 환자는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 것이 좋다.

만성 비염의 경우에는 몸이 차가워져서 생기는 경우와 몸이 허약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이나 물도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또한 땀을 지속적으로 뜨는 것도 비염 치료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비염 예방을 위한 5계명

- 1 금연을 한다
- 2 공기가 안 좋은 곳은 피한다
- 3 집 안을 자주 환기 시킨다
- 4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
- 5 몸을 따뜻하게 한다



## 생활정보

### 경력단절, 다문화 여성 취업에 발벗고 나서

인천시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 여성, 미취업 청년여성 등 인천지역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 여성인턴제 : 구직과 취업에 어려움 겪는 지역여성 대상
  - 결혼이민인턴제 : 다문화여성 경제자립지원, 인턴채용시 1인당 6개월간 300만원 지원.
  - 새일여성인턴제 : 경력단절여성 대상, 정규직 채용시 6개월간 300만원 지원
  - 이외에도 여성휴게실이나 화장실 등을 수리하는 경우 비용 60%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 직장여성, 구직여성 가사부담 완화 밀반찬서비스사업 등
- 문의 : 440-6526~9

### 4월 정신건강의 달 기념행사

인천서구보건소 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4월 정신건강의 달을 맞아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위해 정신건강의 달 기념행사를 연다.

- 일정 : 4월 24일 (화) 14:00 ~ 16:30
- 대상 : 지역주민 전체
- 내용 : 1부 - 예술공연
  - 2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 3부 - 인식개선 거리홍보 캠페인
- 문의 : 560-5006, 5039, www.ismhc.or.kr

### 작은음악여행! 하우스 콘서트

미추홀문화회관은 2012년 두번째 『작은음악여행! House Concert』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일반적인 음악회와는 다른 해설과 공연 후 출연진과 만남의 장 등을 마련하고 문화소외계층과 함께 해 더욱더 의미 있는 자리다.

- 내용 : 제 2회 - 마림바에 매료되다
- 일시 : 4월 6일(금) pm 7:00
- 장소 : 문학시어터 (문학아구장 1루쪽 지하1층)
- 입장료 : 무료 (초대권 소지자에 한하여 입장가능)
- 공연문의 : 765-0220, 0250

### 3월 2014 인천AG 청년서포터즈 활동 보고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청년서포터즈들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를 위해 참가국들 대사, 문화체험관을 찾아 각 나라들과의 교류방안을 논의하는 뜻 깊은 활동을 가졌다. 서포터즈들은 대만, 몽골, 카타르, 부탄, 베트남, 인도, 이란 등의 관련기관을 방문했다.

대만 서포터즈들은 대만 NOC를 방문, 친구어이 현 대만 NOC 비서장을 만나 메시지 액자를 전달하고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또 타이베이 시내에서 대만 현지인을 대상으로 인천과 대만, 아시아경기대회 인식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몽골 서포터즈들은 대학로에 위치한 아르코미술관을 방문, 직접 몽골에 살면서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한 전시작품을 보면서 생생한 몽골을 느꼈다. 카타르 서포터즈들은 3월 14일 상암월드컵 구장을 찾아 대한민국과 경기를 한 카타르를 응원했다.

부탄 서포터즈들은 율령태 부탄 친선대사와 부탄겨주 경험자 이해정씨 등을 만나 부탄의 문화, 생활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베트남 서포터즈들은 베트남 진출 기업가 이희재 대표(현 인천시경제사 회특별보좌관)와 베트남에 정보, 국제무역, 스포츠 그리고 20대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서로 교환했다.

인도 서포터즈는 인도를 몸으로 느끼고자 인도박물관과 인도영화제를 관람하면서 인도문화를 간접 체험했다.

이란 서포터즈들은 지난 2월 16일 인천시 평생교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이란 수교 50주면 기념행사인 ‘인천 페르시아를 만나다’에 참여, 역사깊은 페르시아 문화에 흠뻑 취했다.

우즈베키스탄 서포터즈는 2월 25일 전주 월드컵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친선 축구경기를 관람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을 다짐했다.

카자흐스탄 서포터즈는 카자흐스탄 식문화 체험으로 문화를 알리고 한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노동·생활법을 무료상담안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인천상담소는 노동·생활법을 무료상담을 하고 있다. 법률상담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

- 노동법 관련 일체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서류 작성 등 법률구조 서비스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고소, 고발 구제신청 상담
  - 산업재해, 최저임금, 비정규직등에 대한 관련
  -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 일반 민사,형사,가사 등 생활법률 관련 상담 및 무료 서류 작성 등 법률구조 서비스
  - 부동산, 임대차, 채권, 채무, 이혼, 양육, 상속, 교통사고 등
- 시간 : 월 ~ 금, 오전 9시 ~오후 6시
- 방법 : 전화, 팩스, 직접 방문 상담가능
- 문의 :515-4881

### 율목도서관 4월 문화예술 행사

율목도서관은 4월 봄철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다. 관심있는 어린이 및 성인의 참여를 바란다.

- 제목 : 나만의 숲속 아지트, 율목도서관
- 행사기간 : 4월 5(목) ~ 26(목)

행사명	운영시간	대상	비고
생생! 토크! 서평쓰기 (실제적 서평 교육)	4월 5일(목)~26(목) 매주 목 10:30~12:30	서평쓰기에 관심 있는 분(15명)	사전접수 (770-3804)
신규 회원 환영 이벤트 (율목도서관 기념품 증정)	4월10일(화)~22일(일)	신규 회원	선착순마감
봄밤 영화제	4월13일(금) 오후 7시	어린이 20명	사전접수 (770-3800)
	4월 20일(금) 오후 7시	가족 10팀	
짜강 토마토 심기	4월 14일(토) 오후 2시	가족 20팀	사전접수 (770-3808)
패널시어터 아동극 '빨간부채 파란부채'	4월 15일(일) 오후 2시	누구나 50명	-
책으로 만나는 별★별 이야기	4월 21일(토)~22일(일) 오후 2시	초등학생 각 15명	사전접수 (770-3808)

- 접수기간 : 3월 27일(화) ~ 4월 8(일)
- 접수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본관 1층 안내데스크)
- 문의 : 770-3800, 3812

### ●율목도서관 4월 인문학 강의

- 제목 : 인문학 특강 「비움+채움」
- 일시 : 4월 19(목) 오후 7시~9시
  - 주제 : 本 (인문학과 삶의 관계 성찰)  
“당신이 세상이고 당신이 희망입니다”
  - 강사: 고병헌(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장소 : 율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 접수기간 : 3월 13(화) ~ 4월 19(목)
- 문 의 처 : 770-3802

### 글로벌 관광 비즈니스 전문가 교육생 모집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비 글로벌 관광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일환으로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내용	기타
호텔·관광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6월18일~7월 27일 (6주간 기숙형 수업)	- 관광및문화 이론 - 서비스 실무	- 수료 후 취업알선 (호텔 및 면세점) - www.jcevr.go.kr
글로벌 샵 매니저 양성과정	7월 30일~8월 31일 (5주간 기숙형 수업)	- 실무 영어회화 - 취업 컨설팅 등	

- 모집대상 : 인천 거주 청년 미취업자
- 교육비 : 무료
- 지원접수 : 3월 19일 ~ 4월 30일(선착순 마감)
- 교육장소 : (재)글로벌에듀 인천광역시 영어마을
- 문의 : 564-8089~9

### 봄학기 문화학교 수강생 추가모집

연수문화원은 봄학기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문화강좌에 관심있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 교육기간: 3월 30(금) ~ 5월 24(목), 2개월
- 접수기간: 3월 26(월) 10시부터 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 연수문화원홈페이지(<http://yeonsu.or.kr>) ☞ 강좌신청
  - 연수문화포털사이트(<http://call.yeonsu.go.kr>) ☞ 연수문화원강좌
- 교육내용: 문화·교양 / 음악·전통예술 / 미술·공예 / 어학
- 문 의: 821-6229

### ‘국민연금 웹 EDI 서비스’가 뭔가요?

국민연금 남동연수지사는 국민연금 및 4대보험 공통신고 업무를 무료로 처리하는 인터넷 전자민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가입절차 및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가입절차

① 국민연금 웹 EDI 서비스 접속(<http://edi.nps.or.kr>) → ② 이용 약관 동의 → ③ 사업자관리번호 조회 → ④ 공인인증서 등록 → ⑤ 회원정보 입력

####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

-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장용 인증서
- 개인 : 개인대표자의 인증서
- 보건복지전용 공인인증서

#### ● 주요 서비스

- 매월 보험료 부과액 즉시 확인
- 4대보험 공통신고(취득,상실)
- 국민연금 고유신고(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납부예외,납부재개 등)
- 증명서 실시간 조회 발급 등 다수 서비스

- 문의 : 451-0757

### 전통시장과 골목슈퍼 동시할인 우체국 체크카드 출시

우체국에서는 국내 최초로 전통시장과 집 주변 골목슈퍼에서 할인 받을 수 있는 우체국 체크카드(스타트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우체국 체크카드는 중소기업인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전통시장과 중소형 슈퍼마켓에 대한 할인은 물론 우체국쇼핑이나 우편서비스 이용시 10% 할인, 우체국예금 금리 우대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드 발급은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신청하면 즉시 발급된다. 우체국 인터넷뱅킹 가입자의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 문의 : 453-0632(남인천우체국), 1588-1900(우체국예금보험콜센터)



## 학업중단청소년지원사업 ‘해밀’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학력단절로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학습 서비스를 지원하는 ‘해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면서 검정고시, 대안학교 입학, 복고 등을 통해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사업안내 : “내가 다시 공부할 수 있을까”
- 서비스대상 : 13~24세까지 학업중단 청소년
- 서비스기간 : 2월~12월
- 서비스내용 :
  - 상담지원 : 학업지속의지 및 학습 환경 강화를 위한 개인상담, 부모 상담, 집단상담 등의 상담서비스 지원
  - 학습지원 : 검정고시 준비반 운영, 학습멘토 연계, 학업동기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클리닉 등 학업복귀 지원
  - 지역지원 연계 :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야학교 등 지역자원 연계
- 문의 : 721-2310, 2330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해찬나래 신입생 모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교과학습 지원, 청소년생활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상 : 중학교 1~2학년
- 운영기간 : 2012년 1년 사업
- 운영시간 : 월~금 16시~20시 30분, 매주 토요일
- 프로그램

<b>교과학습과정</b>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국사, 개별속제지도, 독서활동
<b>주중체험과정</b>	방송댄스, 모듬북, 영어연극/뮤지컬, 우쿨렐레, 창의력미술
<b>주말체험과정</b>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사업, 자원봉사활동, 예술문화체험
<b>생활지원과정</b>	급식 · 간식지원, 귀가차량지원,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상담, 장학사업

- 참가비 : 전액무료 (교재비 및 개인재료비 본인부담)
- 문의: 777-7942

## 플랫폼 창고세일

인천아트플랫폼은 〈플랫폼 창고세일〉을 개최한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 인천지역 작가 및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 일시 : 4월 27일(금) ~ 29일(일), 10:00~18:00
- 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공동작업실
- 참여작가 :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 및 인천지역 작가, 각계 예술인
- 문의 : 760-1003

## 한중 수교 20주년 ‘중국주간문화관광축제’

올해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간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인천 방문 확대를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2012 중국주간 문화관광 축제를 연다.

- 행사기간 : 4월 28일(토) ~5월 1일
- 행사장소 : 자유공원, 아트플랫폼, 차이나타운 등 개항장 일원
- 주요행사

분야별	행사명
볼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韓·中 수교 20주년 기념행사</li> <li>『한·중 음식문화 교류전』 『수인국서페의』</li> <li>유명인사 팬 사인회 및 한·중 스타 축하 콘서트</li> <li>차이나타운 길거리 퍼레이드</li> <li>짜장면 박물관 관람</li> <li>한·중 전통문화 공연</li> <li>한·중 실버 문화행사</li> <li>제11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 세계 뽕춤·사자춤 경연</li></ul>
먹을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한·중 대표셰프 양국 음식 시연</li> <li>인천 대표음식 (닭강정) 사식 행사 (1000인분, 2일간)</li> <li>인천지역 특산물 홍보관 운영</li></ul>
즐길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li> <li>Preview 2012 펜타포트 페스티벌 공연</li> <li>뷰티(Beauty)산업과 연계한 미용 체험 및 화장품 등 판매</li> <li>아트플랫폼 창고세일(플리마켓:벼룩시장) 및 전시회 관람</li> <li>OBS 도전! 마이크 스타!</li> <li>오리엔티어링</li></ul>
해외 관광상품 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유명인사 팬 사인회 및 한·중 스타 축하 콘서트</li> <li>수인국서페의 (受隣國書幣儀)</li> <li>K-POP 커버댄스</li> <li>한중 음식문화 교류전</li> <li>한중 전통문화 공연</li> <li>뷰티(Beauty)산업과 연계한 미용 체험 등</li></ul>

- 문 의 : 440-8676

## 억울한 일, 대한법률공단에서 상담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 사업내용
  - 무료법률상담(면접, 전화, 서신, 사이버)
  - 합의조정 및 소장 등 서류작성
  -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사건 등의 소송대리
  - 준법계몽 활동

- 법률구조대상자 범위
  - 월 평균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
  - 농어민, 소상공자영업자 및 영세담배소매인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기정폭력,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 국가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
- 상담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13시~17시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

## 4월 문화행사에 참여하세요

미추홀도서관은 4월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연다. 재미있고 다채로운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원화전시회
  - 일시 : 4월 2일(월)~12일(목)
  - 장소 : 미추홀도서관 1층 로비
  - 작품 : 우리 그림책 ‘길로길로 가다가’ 21점(창비어린이)
  - 문의 : 440-6662~5

- 국악뮤지컬 ‘등실등실 깨비깨비’
  - 일시 : 4월 14(토) 14:00
  - 장소 : 미추홀도서관 지하1층 강당
  - 대상 : 유아 및 초등 저학년, 학부모(선착순 160명 인터넷 접수)
    - ※ 1인당 1좌석만 예약가능
  - 문의 : 440-6662~5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올 1월부터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소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능력개발지원’ 업무를 지원한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훈련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지원 종류	지 원 내 용
훈련비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수로인원×100%(대규모기업은 80%) ※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훈련수당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 월 20만원 한도
숙·식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숙식비 1일 8,500원(월212,500원) 한도 ※ 식비 1일 3,000원 한도
임금일부 해당금액	유급휴가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 훈련참여자: 소정훈련시간 × 시간급최저임금액 ×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0%)

  - 문 의 : 820-8642~6(팩스 0502-820-8899)

## 학부모대상 교육강좌

인천평생학습관은 4, 5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익한 교육강좌를 연다. 교육문제로 고민하거나 아이들과 대화가 안되는 부모들에게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강좌다.

- 5월 학부모 및 교직원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내 용	구분	모집일정	신청방법
학부모교육센터 5월 프로그램	학부모교육	4월 11일(수) ~ 25일(수) 23:00	인터넷 선착순 http://hbmjce.go.kr
	교직원교육	4월 18일(수) 16:00 ~ 5월 2일(수) 24:00	인터넷 선착순 http://www.ilec.go.kr

- 특강- 부모와 아이 마음 간격 1mm
 

제 목	내 용	일시, 장소	접 수	대 상
부모와 아이 마음 간격 1mm 강사 : 손석한 박사	소아정신과 전문의이자 자녀교육 전문가인 손석한 박사가 부모와 아이 마음의 간격을 극복하는 방법 제시	4월 25일(수) 16:00 ~ 18:00 평생학습관 미추홀	인터넷 선착순 접수 3월 28일(수) 오후 4시부터 (예정)	학부모 교직원

- 문의 : 899-1528

## 2012 남북경협 인천아카데미 운영

우리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을 위한 ‘2012 남북경협 인천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관심있는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기간 : 4월 18일(수) ~ 6월 20(수) 매주 1강, 10강 실시
- 모집대상 : 남북경협기업인, 유관기관 정책 및 기획실무자, 대북진출희망기업임직원, 남북관계 경험관련 관심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시군구 공무원 등
- 수강인원 : 50명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사 : 인천시장(특강), 전 통일부 장관, 현대아산 임원, 남북경협 사업가, 북한전공관련 대학교수, 남북특보 등
- 장소 : 인천대학교 미래관 합동강의실
- 수 강 료 : 20만원(NGO 활동가 5만원)
- 문의 : 440-3363(시 국제협력관실)  
835-8706(인천대학교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 인천시 인터넷방송 ‘시민기자’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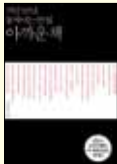
우리시 인터넷방송(Mint TV)는 지역 곳곳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는 ‘시민기자’를 모집합니다. 우리시를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지원자격 : 인천시에 거주하는 시민, 인천을 사랑하는 모든분
- 모집기간 : 4월 1일~4월 15일
- 활동부분 : 시민기자(우리시의 주요소식 현장 취재 및 인터뷰)
- 제출서류 : 간단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연락처 필히 기재)
  - ※ 인천시 시민기자가 되면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합니다.
- 문의 : 440-8471, 8472





## 이달의 서평



### 지난 10년 놓쳐서는 안 될 아까운 책

강수돌 외 | 부키 | 2011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저들을 발굴, 조명하는 「아까운 책」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베스트 셀러가 되지는 못했지만, 내용과 의미는 ‘베스트’인 책을 골라 서평과 함께 소개한다. 이 책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21세기의 첫 10년을 결산했다. 강수돌, 강신주, 우석훈, 뉘나, 장석주, 정해운, 홍기빈, 하지현 등 이 시대의 ‘글쟁이’ 46명이 참여해 문학, 인문, 사회, 경제·경영, 과학, 문화·예술 등 6개 분야의 추천서를 소개하고 ‘함께 읽으면 좋은 책’도 안내한다.



### 낮익은 세상

황석영 | 문학동네 | 2011

칠순을 앞둔 지금까지도 불꽃같은 창작열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 황석영. 그의 문학인생 50년의 담금질을 통해 완성된 이 작품은 쓰레기장인 꽃섬을 배경으로 그곳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은 빈민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버려지는 모든 것들이 산을 이루는 거대하고 웅물스러운 쓰레기매립지 꽃섬. 하지만 그곳에도 삶은 있다. 그곳의 일상에도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고, 성장의 이야기가 자라난다. 작가는 꽃섬에서 폐품 수집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의 아생적 삶과 생활풍속을 자세하게 묘사했다.



### 그는 어떻게 이순신이 되었나

박종평 | 스타북스 | 2011

이순신이 어떻게 위대한 장군이 되었는지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살펴본 책이다.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 방황과 시련을 겪으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학습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바꾼 삶의 이야기를 통해 그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살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는지, 또 세상과 어떻게 소통했는지, 어떻게 수국(水國)을 경영했는지 들려준다. 자신만의 성공, 특정 조직의 성공을 넘어서 백성들의 성공을 추구했고, 결국 그와 그의 백성들 모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엿볼 수 있다.



### 〈그림으로 읽는〉한국 근대의 풍경

이충렬 | 김영사 | 2011

1898년부터 1958년 사이에 그려진 외국 화가들과 우리화가들의 그림 86점을 소개하고, 그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 사건, 장소에서 역사의 자취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적하고 있다. 또한 〈고종실록〉이나 〈순종실록〉의 기록, 미국 국무부 문서, 〈황성신문〉이나 〈독립신문〉 등 당시 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풍부하고 정확한 사료와 그림을 통해 한국 근대사의 숨겨진 이면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 주제별 추천도서

자료제공 인천시 미추홀도서관 440-6655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초등 고전 읽기 혁명	송재환	글담	아이들의 가치관의 뼈대를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고전읽기 방법소개
지난 10년 놓쳐서는 안 될 아까운 책	강수돌 외	부키	전문가 46인이 뽑은 이 시대의 숨은 명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사라 베이크웰	책 읽는수요일	프랑스 정신의 아버지 몽테뉴의 인생에 관한 20가지 대답
그는 어떻게 이순신이 되었나	박종평	스타북스	위기에 더욱 빛나는 이순신의 삶과 경영의 지혜
상식파괴의 경영트렌드 28	김성훈	원앤원북스	경영학 상식을 뒤엎는 비즈니스 트렌드
천문학 콘서트	이광식	더숲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한 권으로 읽는 교양 천문학
클래식 사용설명서	이현모	부키	35가지 기본과 상황에 맞는 맞춤곡들에 대한 해설서
영자신문을 읽는 10가지 공식	이창섭	한나래	15년간 코리아 타임스에 나왔던 어휘를 분석하여 영자신문 읽는 방법론 제시
우리말 소반다듬이	권오운	문학수첩	우리소설을 망친 잘못된 문장과 단어 바로잡기
그녀의 집은 어디인가	정은진	자음과모음	외로운 인생들의 보금자리 찾기
낮익은 세상	황석영	문학동네	버려진 것들의 세상, 그 위에서 자라나는 삶이야기
(그림으로 읽는) 한국근대의 풍경	이충렬	김영사	치밀한 고증, 새로운 통찰, 날카로운 분석으로 하나씩 드러나는 근대사의 오해와 진실

###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 시인 윤부현

아동문학가이며 시인.

1927년 인천시 창영동 출생.

호는 훈류. 건국대학 국문과를 졸업.

195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제이의 휴식》

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주요작품으로 《생화》《과수원》《제2의 휴식(포플라)》《여인》《귀리 밭가에서》 등이 있고, 시집에 《꽃과 여인과 과목》(64), 동시집 《바닷가 게들》(68)이 있다.



## 소중한 일자리, 행복한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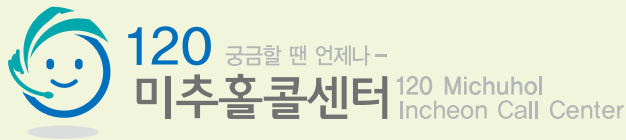
본 정보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구인자료로, 초기에 채용이 완료 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자는『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032) 458-7488,74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모집직종	인원	경력조건	학력	업무능력	근무지(주소)	임금액
(주)청수셀비산업	건축공무원(견적원 포함)	1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사무직 신입.경력(남.여)사원 모집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98-22	월급 200만원
성보공업(주)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1명	관계없음	대졸(4년)	성보공업 영업 관리직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70-7	연봉 2500만원
(주)다산플리텍	범용밀링기조작원	3명	신입	학력무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1-5 남동공단 150블럭 6로트	연봉 2300만원
(주)성은이엔에스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1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영업부/CAD/사무 각분야 담당모집	인천 부평구 부평2동 672-16	연봉 2200만원
(주)대덕휴비즈	유리제품생산직(기계조작)	10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생산직 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9-18	월급 190만원
(주)대방스틸	CNC선반조작원 (NC선반조작원)	1명	경력	학력무관	철판 CNC 산소모형절단 기사 모집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88 18B-10L	연봉 3600만원
(주)대성산업	운송사무원	1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현장노무직및 운전직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6-17 남동공단 110B 11L	월급 168만원
(주)해성산전	산업용 기계장비 기술영업원	1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산업용감속기 기술영업 직원 모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2-4 남동공단 132B-6L	연봉 3000만원
(주)드림팻	소형트럭운전원(4톤 미만)	1명	경력	학력무관	3.5톤 배송기사 모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92-5,6번지	월급 150만원
(주)마스테코	CNC선반조작원 (NC선반조작원)	5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NC(CNC)/MCT 프로그램 입력 및 조작 직원 모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5-12번지 남동공단 146B 13L	월급 200만원
(주)미건스틸	금속기계부품조립원	1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금속기계 절단 및 조립 직원 모집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번지 현대제철내 별관2층	월급 270만원
(주)반야정보통신	판매 관련 단순종사원	3명	관계없음	고졸	kt 직영대리점 판매 구인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2-9 101,102호	연봉 2400만원
(주)삼원알텍	수리 및 정비 관련 관리자	1명	경력	학력무관	도금공장 영선반 기능공 모집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5-12 남동공단 99블럭 13로트	월급 216만원
(주)우신공조	용접원	1명	관계없음	중졸	정밀판금용접초보.용접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3동 542-13	연봉 2500만원
(주)유림원색	포장(패키지)디자이너	1명	관계없음	고졸~대졸(4년)	포장디자이너 모집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1-1번지	연봉 2600만원
(주)제일기계	기계 및 금속 캐드원	1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캐드원 모집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2-3 93블럭 4로트	연봉 2000만원
(주)유림원색	포장(패키지)디자이너	1명	경력	고졸~대졸(4년)	포장디자이너 모집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1-1번지	연봉 2600만원
(주)일윤중기계	기타 기계 조립 및 검사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기계 조립원 모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9-9 남동공단 107블럭 10로트	월급 176만원
(주)제일기계	기계 및 금속 캐드원	1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캐드원 모집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2-3 93블럭 4로트	연봉 2000만원
(주)중원정밀	경리사무원	2명	경력	고졸~대졸 (2~3년)	경리직원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5-2 남동공단 134블럭 3로트	월급 160만원

☞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구인·구직을 돕기 위해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458-7470 ~ 7479, 7488, 7494(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5번출구 50m 전방)





‘인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65일 24시간 시민의 궁금증과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인천시 미추홀콜센터’가  
있습니다

※ 다음은 미추홀콜센터에서  
시민과 소통한 실제사례입니다.



120 궁금할 땐 언제나 -  
미추홀콜센터

Q 토요일에 여권 신청할 수 있나요. \_ 여권

A 토요일에는 시청과 동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무시간은 13시까지입니다.  
시간 내 방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Q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조회해주세요. \_ 과태료

A 차량번호와 차주 명을 확인해 주시면 금액과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무 시간내(평일 9시~18시) 납부 시 압류는 30분~1시간 내에 해제됩니다.

Q 송내역에서 8번, 30번, 11번 버스 막차시간을 알려주세요. \_ 교통상담

A 문의주신 버스의 송내역 기준 막차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8번 00:10분, 11번 00:10분, 30번 00:20분입니다.

Q 자동차가 고장 나서 레커차를 불러 견인했는데 12Km에 15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_ 생활정보

A 국토해양부 확인 결과 운임요금표, 대기료, 작업료 등이 포함됩니다.

상담분야 : 시정, 교통, 생활, 관광, 법률 문의 등

이용방법 : 전화 상담 120(문자상담 032-120), 외국어 상담(영어, 일어, 중국어), 수화 상담 070-7947-9005,  
멀티미디어 상담 스마트폰 앱 · 트위터(@120incheon) · 팩스 상담(032-440-0400),  
상담예약 홈페이지(120.incheon.go.kr),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

궁금할 땐 언제나, 미추홀콜센터 120! 상담시간 : 365일 24시간

※ 지난달 상담 내용 중 일부를 정정합니다.  
영종도에서 월미도까지 배편으로 1시간이 아닌 15분이 걸립니다.  
더 노력하는 미추홀콜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야? 건물이야?

동인천 북광장을 공사하는 곳을 지나다, 경찰서 맞은편에서 신기한 건물  
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처럼 눈, 코, 입이 달린 건물입니다. 볼수록  
재밌고 신기하지요?

\_ 나수정 남구 용현동



정서진의 아름다운 해넘이

아시나요? 강원도에 정동진이 있다면 인천에는 정서진이 있습니  
다. 어서 오셔서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일몰에 흠뻑 빠져보세요. 가  
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오롯하게 추억을 만들기 그만입니다.

\_ 황인수 계양구 계산3동



멋지죠? 인천의 바다랍니다

여섯 살 난 딸이 오빠를 따라 월미도로 '인천바다그리기대회'에 참  
여했습니다. 어때요? 멋지죠? 비록 상은 못 받았지만 아주 즐거운 기억  
으로 가슴에 곱게 새겨졌습니다.

\_ 권경애 부평구 청천2동



강화도로 특별한 나들이

생일날, 강화도로 특별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지금도 당시 찍  
은 사진을 보면 그날의 추억이 떠올라 기분 좋아집니다. 따스한  
봄날, 역사가 살아 숨쉬는 강화도로의 나들이 어떠세요?

\_ 김옥분 남구 학익2동



철도 산책길

인천은 철도의 고향입니다. 예전에는 웬만한 동네마다 철길 하나 정도는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더없는 놀이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인천의  
거의 모든 철도는 폐쇄되고 철길은 뜯겨져 나갔습니다. 남구 용현동 용마  
루 동네에는 옛 철길을 그대로 두고 산책길로 만든 코스가 있습니다.

\_ 차지원 남동구 구월동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칭찬하거나 알고 싶은 주변의 이웃을 사진과 함께 소개(원고지 1매)해 주세요

※ 채택된 분께는 문화상품권(1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 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보내실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독자마당 담당자 앞

문의 : 440-8305





## 엘리스 가족에게도 희망을

글. 민선숙\_인천시 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국장

몇 주 전 본당 신부님이 전화를 했다. 본당 관할 구역 내에 위기에 처한 외국인 노동자 가족이 있는데 함께 방문하자는 내용이었다. 우리가 찾아간 곳은 5.6공단 외곽에 위치한 인천교 근처였다. 대로변에 인접한 이들 가정은 지하가 아닌데도 햇볕보기 힘든 열악한 구조였다. 또 차가운 겨울이었는데도 온기가 전혀 없었고 손님이 오니 그제서야 전기난로를 꺼내는 실정이었다. 남편의 이름은 피터, 스리랑카 사람이었고 아내의 이름은 엘리스, 필리핀 사람이다. 이 가정에는 9개월 된 예쁜 아기가 있었는데 아빠를 닮아 까무잡잡하고 귀여웠다. 눈망울이 얼마나 맑던지 냉기에 움츠렸던 우리들 마음이 따듯이 녹는 것 같았다. 엄마의 배 속엔 4개월 된 아기가 있다고 들었다.

아기 엄마는 14년 전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지방에 정착했는데 사는 내내 폭행과 협박이 일상이었다. 이주여성보호법 덕에 이혼을 하고 어렵게 한국국적을 취득한 그녀는 지금도 과거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고, 타인과 자신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다. 여성으로서 타국에서 혼자 살기 어려웠던 그녀는 같은 처지의 스리랑카 남성과 만나 동거를 했고 그러던 중에 아기를 낳고 둘째까지 갖게 됐다. 사십 갓 넘은 남자 역시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한국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더욱이 남자는 얼마 후면 비자가 만료되어 근심이 가득했다.

다음날 성당에서는 필요한 현금을 준비해줬다.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된 신자끼리 의논해 필요한 물품 목록을 적어 물건들을 모았다. 가져 온 물품은 여아용 옷과 장난감, 여성용 잠바, 남성용 속옷, 귀저기, 분유, 반찬 등 다양했다. 구호 물품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 단숨에 그 집에 찾아가서 보여줬더니 필리핀 여성의 얼굴에 웃음과 축스러운 표정이 교차했다.

우리 성당에 갑자기 등장한 이 작은 사건은 누군가를 돌보아야 하는 부담이 아니라 그동안 등한시하고 잊고 살았던 우리들 소명을 깨우쳐 주는 축복이었다. 영어를 잘하는 엘리스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는 엘리스가 지역 주민들과 사귀는 기회를 갖게 하고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엘리스 가족을 보며 세상을 다시 보게 된다. 자본주의의 무한 확장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안에 생존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비참한 현실에 내동댕이쳐지는지 이들 가정과 만나면서 더 깊이 느낀다.

이들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선 법적인 보호와 지위를 확고히 부여해 돌봐야 한다. 또 한편 국제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가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인들을 미리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으로 여겨지도록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만약 당신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 멀리서 찍었기 때문이다.

— 로버트 카파 —

로버트 카파(Robert Capa, 1913. 10. 22~1954. 5. 25) 헝가리계 유대인이자 미국인으로, 세계적인 사진 에이전시 '매그넘 포토스'의 설립자인 동시에, 20세기 전쟁 보도 사진작가.



## 여기 보세요... 봐야 봄이란다

로마 황제와 미스 코리아의 왕관도 이보다 화려하진 않을 것입니다.

개나리로 만든 화관(花冠)을 쓴 아이들의 수줍은 미소 속에 봄은 왔습니다.

봄이 왜 봄일까요. 보아서 '봄'이고 보여야 '봄'이라고 합니다.

봄이 왔는데 보지 않으면 봄은 온 것이 아닙니다.

사계절 중에 '봄'만 한 글자입니다. 그만큼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획 지나가기 전에 봄을 보세요. 그렇다고 상춘(賞春)하러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자유공원, 월미산, 수봉공원 등에도 봄은 이미 와 있습니다.(서구 승학산 길에서)

글 · 사진. 유동현\_본지편집장